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17, No. 105, pp. 45-93
<https://doi.org/10.29212/mh.2017..105.45>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백마고지 전투의 재조명

- 국군 제9사단의 향상된 전투수행 능력 분석을 중심으로 -

나종남*

1. 들어가는 글
2. 국군 제9사단의 전시(戰時) 훈련과 성과
3. 백마고지 전투: 예고된 혈전
4. 국군 제9사단의 전투수행 능력 분석
5. 맺음말

1. 들어가는 글

전투사(combat history) 혹은 전투 연구(combat studies)는 전쟁사의 중요한 부분이다. 최초의 역사기록으로 남아있는 고대 그리스의 마라톤 전투(Battle of Marathon)로부터 로마와 카르타고가 결전을 벌였던 칸나에 전투(Battle of Cannae), 백년전쟁에 있어서 전환점이 되었던 크레시 전투(Battle of Crécy), 나폴레옹의 뛰어난 작전지휘를 엿볼 수 있는 아우스터리츠 전투(Battle of Austerlitz), 미국 남북전쟁

* 육군사관학교 군사사학과 교수

중의 군사적 전환점이 되었던 게티즈버그 전투(Battle of Gettysburg), 제1차 세계대전의 솜 전투(Battle of Somme)와 베르딩 전투(Battle of Verdun), 제2차 세계대전의 전세 전환의 분기가 되었던 스탈린그라드 전투(Battle of Stalingrad)와 미드웨이 해전(Battle of Midway) 등에 이르기까지 전투사와 전투 연구는 전쟁사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6.25전쟁에 참전한 미군 부대가 수행한 전투에는 비교적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6.25전쟁에 대한 공간사가 발행되는 시점과 때를 같이 하여 미군 부대가 수행한 몇 가지 중요한 전투 - 낙동강 방어선 전투, 인천상륙작전, 장진호 전투, 지평리 전투, 단장의 능선 전투 등 - 에 대한 다양한 연구서가 출판되었으며, 이러한 흐름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¹⁾ 한편 중국에서도 중국군이 성공적으로 수행한 청천강 전투, 상감령 전투와 금성전투에 대해 많은 연구서가 출간된 바 있다. 이러한 개별 전투사에 대한 분석을 통해 통사(通史) 서술에서 제시된 6.25전쟁에 대한 전체적 이해와 더불어, 전쟁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순간과 그 속에서 활약했던 다양한 인간의 모습을 심층 조명할 수 있다.

그런데 6.25전쟁에 대한 국내 연구에서 개별 전투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제한적이다. 6.25전쟁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활기를 띠었던 1990년대 이후 다양한 주제발굴과 사료 소개가 진행되었으나, 유독 개별 전투사, 특히 국군이 담당하여 수행한 전투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조명은 찾아보기 힘들다. 1980년대 초반에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가

1) Arned L. Hinshaw, *Heartbreak Ridge : Korea, 1951* (New York : Praeger, 1989); Curtis Utz, *Assault from the Sea: The Amphibious Landing at Inchon* (Washington, D. C.: Naval Historical Center, 1994); Uzal W. Ent, *Fighting on the Brink: Defense of the Busan Perimeter* (Paduach, Kentucky: Turner Publishing Company, 1996); J. D. Coleman, *Wonju: The Gettysburg of the Korean War* (Washington, D.C.: Brassey's, 2000); Kenneth E. Hamburger, *Leadership in the Crucible: The Korean War Battles of Twin Tunnels and Chipyeong-ni* (College Station, Texas: Texas A&M University Press, 2003); Bill McWilliams, *On Hallowed Ground: The Last Battle for Pork Chop Hill* (Annapolis, Maryland : Naval Institute Press, 2004).

다부동 전투를 시작으로 총 27권에 달하는 전투사 시리즈를 발간하였으나, 횡성전투를 끝으로 중단되었다.²⁾ 최근에는 육군본부 군사연구소가 ‘6.25전쟁 전투사 시리즈’를 새롭게 발간하고 있는데, 새롭게 발굴된 사료와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참신한 시각을 제시했다는 점은 높게 살만하다. 그러나 이것도 발간이 중단되었다.³⁾

그렇다고 해서 6.25전쟁 중 국군이 수행한 전투에 대한 연구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가장 눈에 띄는 사례는 6.25전쟁 발발 50주년 경에 본격화되었던 춘천전투에 대한 관심과 새로운 조명이었다. 이를 통해서 6.25전쟁에서 춘천전투가 갖는 의미를 새롭게 제시하였으며, 결국 ‘춘천대첩’으로 해석하는 성과가 있었다.⁴⁾ 이외에도 국군 제17연대의 화령장 전투와 국군 제1사단의 다부동 전투는 개별 연구자들에 의해 비교적 자세하게 분석된 대표적 사례이다.⁵⁾

2) 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다부동 전투, 장진호 전투, 38도선 초기전투(중·동부전선편), 용문산 전투, 인천상륙작전, 신령·영천 전투, 백마고지 전투, 청천강 전투, 38도선 초기전투(서부전선편), 평양탈환 작전, 안강·포항 전투, 단양·의성 전투, 금성 전투, 저격능선 전투, 현리 전투, 양구 전투, 수도고지·지형능선 전투, 월비산·351고지 전투, 백석산 전투, 임진강 전투, 진천·화령장 전투, 노전평 전투, 충주·점촌 전투, 도솔산 전투, 오산·대전 전투, 교암산 전투, 횡성 전투. 다만 이들은 대체로 각 부대의 작전일지를 사료로 발간한 전투상보(戰鬪詳報)와 참전자 증언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나, 일부를 제외하고는 사상자, 포탄 사용량, 전투 경과 등에 대한 통계자료조차 제시하지 않았다.

3) 육군본부 군사연구소, 『중국군 공세 의지를 꺾은 현리-한계 전투』(대전: 육군본부 군사연구소, 2009); 육군본부 군사연구소, 『유엔군 3차 반격작전 시 지암리-파로호 전투』(대전: 육군본부 군사연구소, 2011).

4) 강원대학교 & 육군 쌍용부대, 「6.25 한국전쟁의 신화 : 춘천대첩, 무엇을 남겼나?」 춘천대첩 50주년기념 학술세미나 자료집, 2000; 이대용, 『두 번의 혈전 : 춘천전투와 낙동강교두보 사수』(서울: 도서출판 백년동안, 2014).

5) 정완진, 『붉은 신호탄: 화령장 전투 4일간의 기적』(서울: 매일경제신문사, 2013); 장삼열, “화령장 전투의 군사적 재조명과 의의,” 『軍史』 제73호, 2009; 조봉휘, “6.25전쟁 시기 다부동지역에서 한국군의 군수지원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5; “나나가 츠네오, “다부동 전투를 통해 본 연합작전의 교훈,” 『軍史』 제53호, 2004. 한편, 남정옥은 6.25전쟁 중에 발생한 주요 10대 전투를 선정하고, 이들을 소개 및 분석한 바 있다. 남정옥, “한국전쟁 10대전투 고찰,” 『戰史』 제3호, 2001.

기존 공간사 서술에서 백마고지 전투는 6.25전쟁을 대표하는 전투 중의 하나로 손꼽히며, ‘불굴의 정신력으로 이겨낸 치열한 격전(激戰),’ ‘압도적으로 많은 수의 중국군을 상대로 승리한 전투’ 등으로 알려져 왔다.⁶⁾ 특히 이 전투는 당시에 The New York Times 등을 포함한 국내 및 국외 언론의 관심이 집중될 정도로 유명해서 온 국민들에게 알려지기도 했다. 또한 전투가 진행되는 중간에 이승만 대통령, 밴 플리트(James A. Van Fleet) 미 제8군사령관 등이 직접 부대를 방문하여 전황을 보고받고, 제9사단장 김종오 소장을 포함한 주요 지휘관을 격려했을 만큼 이 전투가 갖는 의미도 여느 전투와는 달랐다. 그러한 맥락에서 국방부 공간사도 백마고지 전투를 다른 전투에 비해 자세하게 다루었으며, 이 전투의 승리가 갖는 의의에 주목하였다.

백마고지 전투에 대한 연구가 다른 전투에 비해 비교적 자세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전투에 대한 사료(史料)가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다. 앞서 지적한 대로, 백마고지 전투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수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군과 미군의 작전일지, 전투상보, 참전자 증언을 포함한 구술자료가 비교적 자세하게 제작되었다. 이중에서도 미 제1, 9군단과 미 군사고문단(KMAG) 등이 작성한 자료는 일찍이 국내에 도입되어 많은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⁷⁾ 그럼에도 불

6) 이 글에서 기준으로 하는 국방부 공간사(公刊史)는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전투사 : 백마고지 전투』 (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4);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下)』 (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7), pp. 389~39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제10권 : 휴전회담 고착과 고지쟁탈전 격화』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pp. 396~430 등이다.

7) 이 글에서 국군 제9사단의 전투 효율성 및 작전수행 능력을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한 1차 사료는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전투상보』 58권(제9사단) (대전: 육군본부 군사연구실, 1987), pp. 657~758; HQ, 9th US Corps, “Special After Action Report Hill 395 (White Horse Mountain) 6-15 October 1952,” The James A. Van Fleet Papers, Box 81, the George Marshall Library, Lexington, Virginia. (이하 Van Fleet Papers로 표기함); 8202nd Army Unit, US Military Advisory Group, “Command Report, Oct. 1952, ROKA Combat Units, KMAG, 9th ROK Division, etc.” RG 407 Records of the Adjutant General’s Office, 1905-1981, Command Reports, 1949-1954, Non Organic Units, NARA 등이다.

구하고 백마고지 전투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1980년대 국방부 공간사에서 제시한 시각, 즉 ‘치열한 격전(激戰)’이나 ‘불굴의 정신력을 앞세워 승리한 전투’ 등에 한정되다보니, 새롭게 발굴된 자료를 활용한 참신한 시각과 접근은 시도되지 못하고 있다.

이 글은 6.25전쟁의 고지쟁탈전이 절정으로 치닫던 1952년 가을, 국군 제9사단이 철원 북방 무명 395고지에서 중국군 제38군 예하의 3개 사단과 약 10일에 걸쳐 치열하게 싸워서 승리한 백마고지 전투를 국군 제9사단의 향상된 전투수행 능력과 전투 효율성(combat effectiveness)에 집중하여 분석할 것이다.⁸⁾ 우선 그동안 ‘불굴의 정신력을 앞세워 승리한 치열한 격전’의 대명사로 알려진 백마고지 전투를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개별 교전의 양상이 어떠한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또한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국군 제9사단이 승리하는 구체적인 과정에서 피아 투입 병력, 포탄 사용량, 사상자 숫자, 교전 지속시간 등의 자료를 비교 분석할 것이며, 주요 지휘관이 보여준 리더십과 작전 지휘도 검토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1951년 5월의 현리전투에서 패배한 이후 제9사단이 야전훈련사령부 등에서 경험한 전시(戰時) 훈련, 1951년 가을에 중국군을 상대로 수행한 전초전, 1952년 하계에 실시한 부대 자체훈련, 그리고 치열하게 전개된 총 12차례의 공방전의 구체적

8) 여러 학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투수행 능력과 전투 효율성에 대한 정의와 모델은 대체로 달성 가능한 임무에 대한 판단, 부대의 작전수행에 대한 평가 등을 둘러싸고 차이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Trevor Dupuy가 Combat Effectiveness Variables에 근거하여 제시한 Quantified Judgement Method(QJM) 등이 있다. 이 글에서는 전투 효율성을 “전투에서 최단 시간 내에, 최소의 물자와 병력을 사용하여,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투에 임하는 군대 조직의 능력(ability of a military organization to achieve its assigned missions with the least expenditure of resources (both material and human) in the shortest amount of time)”으로 정의한 Peter R. Mansoor의 연구에 따른다. 다만 탄약 소모량과 사상자 숫자, 전투지속 시간 등 숫자 및 계량화 가능한 요소와 지휘관의 전투 지휘 등 계량화하기 힘든 요소를 동시에 고려할 것이다. Peter R. Mansoor, *The GI Offensive in Europe : The Triumph of American Infantry Division* (Lawrence, Kansas: University of Kansas Press, 1999), p. 3.

양상을 입체적, 다각적 시각에서 살펴볼 것이다.

이 글은 또한 전투사 혹은 전투 연구의 특성을 이용하여 선정된 주제에 대한 자세하고 세밀한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특히 국군 제9사단이 395고지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효율적으로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전투 기간 중에 실시한 기동과 화력의 조율, 주공부대와 조공부대의 역할 분담과 임무수행, 지휘관의 전체적 전황파악과 적시 적절한 예비대 투입 등의 과정을 전투수행 능력의 측면에서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서 기존에 백마고지 전투의 결정적 승리 요인으로 분석하였던 ‘불굴의 정신력’ 외에도, 이 전투의 승리를 가능하게 했던 보다 구체적, 가시적 요소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백마고지 전투에 대한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서 향후 6.25전쟁 중에 치러진 수많은 전투에 대한 체계적 검토와 분석을 위한 하나의 틀(a frame)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국군 제9사단의 전시(戰時) 훈련과 성과

국군 제9사단은 1950년 10월 25일에 충청도 출신 장병이 주축을 이뤘던 제28, 29, 30연대를 모체로 창설되었다. 이 사단은 창설 직후부터 약 2개월 동안 경상북도와 전라북도 내륙 산악지대에서 활동하던 적 게릴라 진압작전을 수행하였으며, 이후 중국군 참전으로 전세가 복잡해지자 육군본부의 명령에 의해 1950년 12월 중순에 전선으로 출동하였다. 전방으로 이동한 제9사단은 동부전선에서 작전을 수행하였으며, 1951년 4월에는 국군과 유엔군의 선두에서 한계령 인근까지 진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1951년 5월에 개시된 중국군 제5차 공세에서 국군 제3군단의 일원으로 현리전투에 투입된 제9사단은 치욕적인 패배를 당했다. 1951년 초에 국군 제6사단의 사창리전투 패배와 제8사단의 횡성전투 패배와 마찬가지로, 국군 제3군단의 현리전투 패배는 이 시기

에 한국군이 가지고 있던 고질적 문제와 근본적 한계가 드러난 대표적 사례였다.

현리전투 직후 국군 제9사단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은 많지 않다. 1951년 6월 30일에 미 제8군사령부가 이 사단에 대한 군수분야 점검 후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군수 및 병참 상황이 심각할 정도로 열악했다. 식량과 군복, 전투화 등은 미군의 지원으로 큰 어려움이 없었으나, 특히 전투장비와 차량 등이 부족하여 전투임무 수행이 어려울 지경이었다. 그 이유는 현리전투 직후 미 제8군사령관이 국군 제3군단을 해체하면서 그 예하부대에 대한 병참지원을 금지했기 때문인데, 이에 따라 국군 제3, 9사단에게는 전투물자와 장비가 제공되지 않았다. 그 결과 1951년 6월에 제9사단이 보유한 81mm 박격포는 고작 12문으로, 편제 보유량 54문의 1/4에도 미치지 못했다. 심지어 일부 부대가 상급부대의 지시에 의해 전투에 투입될 경우, 임무수행에 필요한 기관총과 박격포 등 필수 전투장비는 인접 미 제3사단으로부터 대여하여 사용해야 했다.⁹⁾

제9사단 창설 초기부터 약 1년 동안 포병 고문관으로 근무했던 엘돈 앤더슨(Eldon B. Anderson) 소령의 증언에서는 현리전투에서 패배한 직후 제9사단의 전투수행 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파악이 가능하다. 앤더슨 소령은 제9사단이 포병화기 및 탄약부족으로 인하여 전투임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제9사단에게 일시적으로 미군의 포병화력이 배속되는 경우에도 국군 지휘관이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한 사례가 거의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미군과 달리 국군은 지휘관으로부터 부사관에 이르기까지 간부들이 화력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평상시에도 기관총이나 포병 장비 등에 대한 수리와 정비에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한국군 장병

9) "Staff Visit to 9th ROK Division(26 Jun 51)," 30 June 1951, RG 338, K MAG, Adjutant General, Decimal File, 1948-53, Box 39, AG No.333, 1951. NARA.

의 전사적 기질은 결코 미군에 뒤처지지 않았지만, 제9사단의 작전수행은 간부의 리더십 부족과 포병화력 운용 미숙 등으로 인해서 매번 치명적 차질이 발생했다고 분석하였다.¹⁰⁾

이 시기에 한국군 부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그에 따른 해법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군 지휘부, 미 제8군사령부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군의 무기 및 장비, 병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당장이라도 미국이 한국군 규모를 증강시키고, 이들에 대해 충분한 무기와 보급품을 제공하면 한국군이 훨씬 더 잘 싸우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¹¹⁾ 정일권 참모총장을 포함한 국군 지휘관들은 국군이 여전히 소총과 수류탄 등 기초 전투물자를 포함한 절대적 병참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장교와 병사 대부분은 정규훈련을 받을 기회가 턱없이 부족했으며, 그 결과 정규작전을 제대로 수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였다.¹²⁾ 실제로 국군 제6사단이 사창리 전투에서 중국군에게 포위될 위협에 처하자 철수할 것을 지시한 사단장 장도영 준장은 훈련이 안된 병력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적이 다가오기 이전에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¹³⁾

하지만 한국군 사단급 부대가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실망스러운 작전수행에 대한 미 제8군사령부와 주한 미 군사고문단(KMAG)의 분석은 달랐다. 미군 지휘관들은 한국군의 장교를 포함한 간부 전체의 리더십 부족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적하였다. 이들은 한국군 장교와 부사관에게서 “강한 전투의지의 근간이 되는 열정적, 전문적 리더십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하였다.¹⁴⁾ 또한 한국군은 “(중국군으로부터

10) “Debriefing Report,” No. 76, 6 March 1952, Fort Sill, Oklahoma, RG 550, Records of HQ, US Army Pacific, Military Historian’s Office, Organizational Files, Box 61. NARA.

11) 나중남, “한국전쟁 중 한국 육군의 재편성과 증강, 1951~53,” 軍史, 제63호, p. 221.

12) 백선엽, 『6.25 한국전쟁 회고록: 군과 나』 (서울: 대륙연구소 출판부, 1989), p. 198.

13) 장도영, 『장도영 회고록: 망향』 (서울: 도서출판 숲속의 꿈, 2001), p. 215.

공격을 당할 경우)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채 매번 공포와 공황에 빠져 스스로 붕괴한다”고 분석하였다. 미 제8군 사령부 전투 관찰단(Combat Observation Team)이 1951년 3월에 국군 제3군단의 전투 수행 능력을 관찰한 후 작성한 보고서는 “(한국군 지휘관이) 부대를 효율적으로 장악 및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였다.¹⁵⁾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1951년 초에 한국군 부대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에 대한 미군 지휘부와 KMAC의 평가는 예리하고 정확했다. 중국군 참전 직후부터 한국군의 작전수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자, 미 제8군 사령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1951년 4월에 미 제8군사령관으로 부임한 밴 플리트 중장은 현리전투 직후 국군 제3군단을 해체하였는데, 중국군의 집중공격에 의해 붕괴되는 한국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로 인해서 태백산맥 동쪽에 배치된 국군 제1군단을 제외한 모든 한국군 사단급 부대가 전선에서 모습을 감추는 기이한 현상이 전개되었다.¹⁶⁾ 한국군의 작전수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조지 마셜(George C. Marshall) 미 국방장관은 과거 필리핀에서 실시했던 방안, 즉 미군 지휘관이 한국군 부대를 지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였다.¹⁷⁾ 일부 군사전문가는 일본군이나 대만군을 한국전선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¹⁸⁾ 하지만 이와 같은 조치들은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은 될 수 없었다. 짧

14) Ridgway to Hull, 23 July 1951, Ridgway Papers, Box 20, US Army Military History Institute, Carlisle, Pennsylvania, (이하 USAMHI로 표기)

15) Far Eastern Command, Report of Army Field Observations (March 1951), pp. 7~8. USAMHI.

16) 나중남, “한국전쟁 중 한국 육군의 재편성과 증강, 1951~53,” p. 220.

17) Chief of Staff to Command in Chief, Far East Command, 23 May 1951, Van Fleet Papers, Box 86.

18) “JNPR(Japanese National Police Reserve),” Frank E. Lowe, Major General, USAR to Harry S. Truman, 10 February 1951, The Frank E. Lowe Papers, USAMHI.

은 시간 내에 한국군을 다시 전장에 투입하여 중국군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군대로 만들기 위한 특단의 조치와 효과적인 해법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미 제8군사령부는 훈련부족으로 인해 전투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감소된 한국군 부대를 체계적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야전훈련사령부(the Field Training Center, FTC)¹⁹⁾ 설치라는 해결책을 내놓았다. 밴 플리트 사령관은 FTC 훈련 프로그램을 구상하던 1951년 6월 중순부터 한국군의 사단급 부대에 대한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미군 각 군단장에게 FTC를 설치하여 한국군을 훈련시키기 위한 준비에 만반을 기하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한국군의 약점으로 지적된 각종 장비의 효율적 운용, 소부대 전투기술, 수색과 정찰, 장교와 부사관의 리더십 향상 등에 역점을 맞추라고 지시하였다.²⁰⁾ 이를 통해서 미 제8군사령부가 의도했던 바는 한국군 사단급 부대의 전투 효율성(combat effectiveness)을 향상시켜 장차 중국군을 상대로 전투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전투수행 능력을 갖추도록 훈련시키는 것이었다.²¹⁾

FTC에 입소한 한국군 사단을 훈련시킬 책임은 이를 설치하여 운용하는 미군 군단장이 맡았다. 이들은 유능한 장교와 부사관을 선발하여 한국군 부대를 훈련시키기 위한 시설과 훈련장 마련에 착수하였다. 한국군을 훈련시키기 위해 선발된 미군 장교와 부사관은 본격적인 훈련을 시작하기 앞서 미리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훈련이 진행되는 도

19) 1951년 7월 말부터 조직되기 시작해서 8월부터 임무를 수행한 ‘the Field Training Center,’ ‘the Field Training Camp’ 혹은 ‘the Field Training Command’ 를 “FTC” 혹은 “야전훈련사령부”로 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유성중, “6.25전쟁 시 야전훈련사령부(FTC)의 창설과 역할,” 軍史, 제91호, 2016, pp. 1~32의 각주 1)을 참고할 것.

20) Commanding General, US Eighth Army to Commanding General, I US Corps, “Letter of Instructions,” 19 June 1951, Van Fleet Papers, Box 81.

21) 밴 플리트 미 제8군사령관은 FTC를 설치 및 운용하는 책임은 미 육군의 각 군단이 담당하고, 이와 동시에 한국군에 대한 전체적인 훈련 실시와 통제는 KMAG이 담당할 예정이었다. 나중남, “한국전쟁 중 한국 육군의 재편성과 증강, 1951~1953,” pp. 232~235.

중에는 일일 단위로 교육훈련 결산을 실시하여 전체적인 진행경과를 파악하였다.²²⁾ 특히 FTC에서는 미 육군 교육훈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전술의 기본내용을 한국군 훈련에 적용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지금까지 한국군과 미군 사이에 상이했던 소부대 전술이 일치되는 계기가 되었다.

미군 군단이 FTC에서 한국군 사단급 부대를 훈련시키기 위해 구상한 표준훈련 기간은 대체로 9주였다. 이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제1주에는 부대이동 및 훈련준비, 훈련을 시작하기 위한 부대검열을 실시하고, 나머지 8주는 개인훈련으로부터 소부대 및 대부대 훈련 순서로 구성되었다. 첫 주는 개인정비와 편제장비 훈련에 필요한 준비시간이었으며, 이후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되어 사격과 기동, 제대별 화력운용과 전술 등이 분대, 소대, 중대, 대대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제대별 훈련이 종료된 직후에는 약 1주일에 걸쳐 FTC 본부에 의한 검열 혹은 지휘소 훈련(Command Post Exercise, CPX)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한편 훈련기간 중에는 1주일 중 최소 60시간, 1일 10시간 이상의 훈련시간이 엄수되었고, 규정된 시간 중 30%는 야간훈련에 할당되었다.²³⁾

그런데 국군 제9사단이 경기도 포천군 내촌면 일대에 설치된 미 제1군단의 제1야전훈련사령부(FTC #1)에 입소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현리전투 이후 국군 제9사단의 전투수행 능력과 전투 효율성을 향상시킬 방안을 고심하던 밴 플리트 미 제8군사령관은 1951년 7월 말에

22) 위의 글

23) 이 기간에 추구한 훈련 목표는 총 여섯 가지였다. 첫째, 보병 소총수를 육성하고, 이들이 보병 중대의 일원이 되도록 한다. 둘째, 보병 사단을 구성하는 각 병과의 모든 구성원이 담당 분야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킨다. 셋째, 소부대와 팀들이 단위부대(Unit) 혹은 상급부대의 일원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넷째, 분대~소대~중대~대대 전술을 구사하여 각급 부대의 전투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전투 승리에 필요한 '협조된 팀워크'를 달성한다. 다섯째, 전투근무 및 전투지원 임무를 담당하는 부대의 역량을 향상시킨다. 여섯째, 모든 제대 지휘관의 지휘와 통솔 능력을 향상시킨다. 유성중, "6.25전쟁 시 야전훈련사령부(FTC)의 창설과 역할," p. 20.

미 제1군단장에게 국군 제9사단을 즉시 후방으로 이동시켜 재편성에 착수하라고 지시하였다. 그 이유는 제9사단과 제3사단은 그 동안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투피로가 누적되었을 뿐만 아니라, 편제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작전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밴 플리트 사령관의 지시와 달리, 미 제1군단장 오다니엘 소장은 국군 제9사단을 전선 직후방의 인근지역으로 이동시킨 후, 그곳에서 단기간에 걸쳐 보충훈련을 실시하려는 구상을 세웠다. 중국군의 압박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에서 국군 1개 사단을 후방으로 철수시킨 후 훈련시킬 수 있는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었다.²⁴⁾ 대신 미 제1군단장은 국군 제9사단을 재편성하기 위해 미 제8군사령부에 자동소총 31정, 경기관총 81정, 중기관총 53정, 81mm 박격포 43문, 통신장비 117대 등의 장비를 요청하였다.²⁵⁾

하지만 밴 플리트 사령관은 미 제1군단장의 계획을 승인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미 제1군단장이 구상하는 국군 제9사단에 대한 훈련, 즉 전선 인근에서 단기간에 걸쳐 실시하는 훈련으로는 자신이 요구하는 체계적 훈련을 실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밴 플리트 사령관은 미 제1군단장에게 국군 제9사단을 “후방으로 이동시킨 후 K MAG이 주도하는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포괄적이고, 철저하게 훈련 (a through, intensive training program in a rear area under close supervision of K MAG)” 시키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²⁶⁾ 이와 같은 우여곡절 끝에 미 제1군단장은 국군 제9사단을 제1야전훈련 사령부(FTC #1)에 입소시켰다. 이때 밴 플리트 사령관은 직접 미 제1

24) “Commanding General’s Journal,” 24 July 1951, Van Fleet Papers, Box 81.

25) 이와 같은 요청에 대해 밴 플리트 사령관은 과거 전투에서 국군 제9사단이 적에게 많은 장비를 유실하였음을 상기하면서, 가급적이면 국군 제9사단에는 경장비 위주로 제공할 것을 지시하였다. 다만 현행 작전수행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통신장비에 대해서는 즉시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Commanding General’s Journal,” 24 July 1951, Van Fleet Papers, Box 81.

26) “Commanding General’s Journal,” 24 July 1951, Van Fleet Papers, Box 81.

군단장에게 전문을 보내서 국군 제9사단에 대한 훈련 목적이 “고도의 전투 효율성 향상과 사기 진작(a high degree of combat effectiveness and morale)”이라고 명시하며, 훈련 종료된 직후 48시간 이내에 제9사단을 즉시 전투임무에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라고 지시하였다.²⁷⁾ 이처럼 한국군 사단 중에서 FTC에 최초로 입소한 국군 제9사단은 1951년 8월 18일부터 10월 12일까지 약 8주 동안 훈련을 받았다.

그런데 국군 제9사단이 FTC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을 받았으며, 훈련 결과가 어떠한지를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사료는 많지 않다. 다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료와 정황 증거를 통해서 국군 제9사단의 FTC 훈련이 성공적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첫째, 1952년 초에 KMAG이 작성한 야전훈련사령부의 추가 및 확장 가능성에 대한 보고서이다. KMAG 본부는 1952년 2월 말에 야전훈련사령부의 운용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왜 미 제8군 사령부가 FTC를 조직하였고,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를 개략적으로 설명하였다. 특히 이 보고서는 국군 제9사단이 제1야전훈련사령부에 입소하여 성공적으로 훈련을 받은 내용을 개략하였으며, 이러한 성공이 차후 제2 및 제3야전훈련사령부의 조직 및 확장으로 연결되었다고 분석하였다.²⁸⁾ KMAG도 제1야전훈련사령부에서 진행된 훈련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국군 제9사단의 전투수행 능력이 대단히 증가하였다(the greatly increased battle worthiness

27) Commanding General, US Eighth Army to Commanding General, I US Corps, “Letter of Instructions,” 5 August 1951, Van Fleet Papers, Box 81.

28) “HQ, Field Training Command - Command Report, January 1952,” 29 February 1952. 국군 제9사단이 FTC 훈련을 받는 기간 중 FTC의 운영 및 한국군 부대의 훈련 진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수많은 인사들이 방문하였다. 특히 훈련 개시 4주 후인 1951년 9월 14일에 이승만 대통령, 이기붕 국방장관, 이종찬 육군참모총장, 오다니엘 미 제1군단장, 라이언 KMAG 단장 등이 방문하였다. 이날 방문에서 한국과 미국의 주요 군사지도자들은 국군 제9사단장으로부터 훈련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내용과 진행경과를 보고 받았으며, 야외훈련도 시찰하였다. “Commanding General’s Journal,” 14 September 1951, Van Fleet Papers, Box 81.

of the 9th ROK division)”고 분석하였는데, 특히 훈련을 통해 전투원 개인은 물론 각급 부대의 지휘자 및 지휘관의 전투 중 역할과 리더십이 향상되었다고 분석하였다.²⁹⁾

둘째, 국군 제9사단이 8주간 동안 교육을 마친 이후 다시 전선에 투입된 직후 보여준 실전의 결과이다. FTC 훈련을 마친 제9사단은 즉시 미 제1군단에 배속되었으며, 이후 미 제3사단이 추계작전을 종료한 1951년 10월 20일에 철원 평야 북방의 281고지와 395고지 일대, 즉 철의 삼각지대의 좌측 지역을 인수하였다. 이후 제9사단은 우측에 제30연대를, 좌측에 제29연대를 배치하고, 후방에 제28연대를 예비로 배치하였다. 미 제1군단의 우익을 담당하던 국군 제9사단은 우측의 미 제15사단 및 좌측의 미 제1기병사단과 연계하면서 작전을 수행하였다.³⁰⁾ 그리고 1951년 11월 초에 281고지와 395고지에서 중국군 제42군 예하 126사단과의 약 4일에 걸쳐 격렬한 고지쟁탈전을 치르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고지를 빼앗겼으나, 이후 성공적인 반격작전을 통해 마침내 두 고지를 모두 탈환하였다.³¹⁾ FTC에 입소하기 이전에는 기대하기 힘들었던 승리였으며, 국군 제9사단이 그동안 야전훈련사령부에서 미군이 주도하는 훈련을 성실하게 수행한 결과였다.

이처럼 국군 제9사단은 미 제3사단을 대신하여 투입되어 실시한 최

29) “HQ, Field Training Command - Command Report, January 1952,” 29 February 1952, RG 407, Records of the Adjutant General’s Office, 1905~1981, Command Reports, 1949-1954, Non Organic Units, USMAG, Korea, NARA; “9th ROK Division - Result of Training,” 7 September 1951, Park Byong Kwon, 9th ROK Division, Commanding General to General Chief of Staff, RG 554, Adjutant General’s Office, Decimal Files, 1948-53, KMAG AG, 1951. 7-12, Box 43, NARA.

3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제9권 : 휴전회담 개막과 고지쟁탈전』(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p. 559.

31) KMAG이 밴 플리트 사령관에게 보고한 바에 따르면, 1951년 11월 초의 395고지 전투에서 국군 제9사단은 적과의 교전에서 약 400명을 확정 사살하는 동안 단 1명의 인명피해만 발생할 정도로 완벽하게 작전을 수행했다. “HQ, Field Training Command - Command Report, January 1952,” 29 February 1952.

초의 전투에서 중국군의 공격을 완벽하게 저지함으로써 임무를 완수하였다. 물론 1951년 11월에 395고지를 공격한 중국군의 병력과 화력 규모가 압도적인 수준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국군 제9사단에게는 불과 5개월 전에 중국군에게 치욕적인 패배를 당했던 현리전투에서의 기억을 씻어낼 수 있을 만큼의 소중한 승리였다. 뿐만 아니라 이 전투를 통해서 국군 제9사단의 모든 장병은 전시 재편성을 위해 미군의 주도하에 성실하게 진행되었던 FTC 훈련의 성과와 향상된 전투수행 능력을 체감하였으며, 이를 통해 차후 실시될 전투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³²⁾

3. 백마고지 전투: 예고된 혈전

기존 공간사는 ‘치열한 격전’의 대명사로 알려진 백마고지 전투에서 국군 제9사단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를 국군 장병이 보여준 불굴의 전투의지와 정신력, 그리고 사단장 김종오 소장을 포함한 지휘관의 우수한 전투지휘 등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였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과연 국군 제9사단이 당시의 미군 사단에게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전투수행 능력을 발휘하여 약 세 배나 많은 규모의 중국군을 제압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즉 기존과 완전히 달라진 작전수행 방식과 높은 전투 효율성을 보유하게 된 이유에 대한 해답을 찾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395고지 전투에서 국군 제9사단이 성공적인 전투를 수행할 수 있었던 이유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백마고지 전투가 유례 없을 정도로 치열한 격전으로 전개된 이유를 분석하고, 국군 제9사단이 중국군을 상대로 치열한 전투를 치를 수 있었던 배경과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32) “HQ, Field Training Command - Command Report, January 1952,” 29 February 1952.

국군 제9사단이 미 제3사단을 대신하여 철원 북방에 투입되어 작전을 수행하던 1951년 10월, 중국군 제42군은 395고지와 281고지 등 철원 평야에 대한 주요 감제고지를 만회하기 위한 작전에 나섰다. 특히 1951년 11월에 접어들어 정전회담에서 현 접촉선을 중심으로 군사분계선을 설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의가 이뤄질 예측이 제기됨에 따라, 점차 주요 전초진지를 둘러싼 치열한 격전이 예상되었다.

결국 11월 3일에 중국군 제42군 예하의 126사단이 야간 22:30부터 대대적인 공격준비사격을 시작으로 281고지에 대한 공세를 시작하였다. 약 1개 연대규모의 병력을 281고지에 집결한 적의 공격에 맞선 제29연대 1대대는 11월 4일 새벽 04:00경에 고지 정상에 적에게 내주고 후퇴하였으나, 이후 연대장이 제3대대 병력을 추가 투입하여 반격작전을 개시하여 정오경에 다시 281고지를 탈환하였다.³³⁾ 281고지 확보에 실패한 중국군 제126사단은 11월 5일 야간에 395고지 방향으로 공격을 재개하였다. 395고지를 담당했던 제29연대 2대대가 적의 공격을 받아 위협에 처하자, 제9사단장은 제28연대장에게 2개 대대를 투입하여 395고지를 방어토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일시적으로 중국군에게 탈취되었던 395고지 정상은 적시적인 반격작전을 개시한 제28연대 예하 부대가 회복하였다. 이후 오전 11:00경에 국군 제9사단이 395고지 전체를 장악하였다.³⁴⁾

국군 제9사단은 1951년 11월 초에 395고지에서 중공군을 상대로 치른 일련의 전투 직후에 즉시 사단 자체 교육훈련을 계속하였다. 1951년 11월 말부터 1952년 5월에 이르기까지 정전회담으로 전선에 소강상태가 지속되었는데, 이 기간 중에 제9사단은 KMAG의 지도에 따라 FTC에서 훈련했던 내용을 보완하였다. 또한 철원 평야 북방지역의 산악지역에서 전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소부대 전술훈련, 화력훈련, 야간전투, 보전협동 훈련 등에 박차를 가했다.

3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휴전회담 개막과 고지쟁탈전』, pp. 563~564.

34) 위의 글, pp. 566~567.

국군 제9사단이 1952년 초에 자체적으로 실시한 훈련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각급 제대의 공격 및 방어훈련, 보병에 대한 포병 및 전차의 화력지원, 각종 화기의 실사격 훈련 등이었다. 특히 1952년 6월에 실시한 자체 훈련에서는 공격과 방어 시에 보병과 포병, 공병 등을 통합적으로 운용하는 데 역점을 둔 팀 단위 전투훈련(Team Combat Training)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다.³⁵⁾ 1952년 7월에는 각 연대별로 필요한 훈련을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실시토록 하였는데, 가장 두드러진 훈련은 사격과 소부대 전술, 그리고 야간전투였다. 각 연대별로 살펴보면, 우측에 투입된 제28연대는 소화기 사격훈련(Small Arms Practice Firing)에 역점을 두었으며, 좌측에 투입된 제30연대는 중대 습격훈련(Company Raid)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후방에서 예비 임무를 수행하던 제29연대는 가장 많은 훈련을 실시하였는데, 특히 공격 및 방어 시의 소대전투, 소총 전투사격, 보전협동 훈련(Tank-Infantry Team Work Training)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다.³⁶⁾

또한 1952년 7월과 8월에는 지금까지 실시했던 훈련과는 차원이 다른 대규모 사단 훈련이 실시되었다. 먼저 미 제9군단의 통제에 의해 진행된 8주 훈련 프로그램은 1952년 8월 초에 종료되었다. 이 훈련에서는 전방의 전선에 배치된 연대의 후방 예비대대를 중점적으로 훈련시켰으며, 특히 전선에서 파악된 훈련소요를 중심으로 훈련을 전개하였다.³⁷⁾ 군단 통제 훈련이 종료된 직후 제9사단장 김종오 소장은 8월 13일

35) "Command Report, June 1952," ROKA Combat Units, RG 407, Records of the Adjutant General's Office, 1905~1981, Command Reports, 1949-1954, Non Organic Units, USMAG, Korea, NARA.

36) "Report on the Subject of Training Conducted during July," "Command Report, July 1952," ROKA Combat Units, RG 407, Records of the Adjutant General's Office, 1905~1981, Command Reports, 1949-1954, Non Organic Units, USMAG, Korea, NARA.

37) "Command Report, August 1952," ROKA Combat Units, RG 407, Records of the Adjutant General's Office, 1905~1981, Command Reports, 1949-1954, Non Organic Units, USMAG, Korea, NARA.

부터 약 5주간에 걸쳐 자체 사단통제 자체훈련을 실시하였다. 이 훈련은 전방의 전선에 배치된 연대의 순환주기를 고려하여 각 연대별로 최소 3주 이상 대대급 이상 공격과 방어훈련을 실시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때 제9사단장이 제시한 훈련중점은 고도의 사격술 훈련(high level of firing training)과 야간전투 친숙훈련(familiarization of combat in night time)이었다. 또한 주별 및 일일 훈련 시간은 야전훈련사령부에서 적용했던 것과 유사하게 주별 최소 60시간 이상, 일별 최소 10시간 이상으로 결정하였다. 제30연대는 사단에 배속된 미 제53전차중대와 협력하여 보전협동 공격을 중점 실시하였는데, 각 중대별로 하루씩 돌아가면서 전차를 활용한 고지공격 훈련에 집중하였다. 또한 야간전투에서 전차를 활용한 공격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연습하였다.³⁸⁾

당시 제9사단에서 근무했던 국군 지휘관들은 훗날 백마고지 전투에서의 승리가 1952년 여름에 본격적으로 실시했던 사단의 체계적 훈련에 힘입은 바 크다고 회고하였다. 사단장 김종오 소장의 명령에 의해 부대 교육훈련을 담당했던 부사단장 김동빈 대령은 소부대 사격훈련, 폭발물 취급법 등에 중점을 두었다고 주장하며, 이와 같은 5주 집중훈련이 종료된 직후에 백마고지에 대한 적의 공격이 시작된 것이 다행이라고 회고하였다.³⁹⁾ 제30연대 1대대장 김영선 소령도 8월 14일부터 9월 20일까지 사단 계획에 의하여 5주 교육훈련을 마친 이후 대대 장병의 사기가 어느 때보다 왕성하였고, 훈련의 성과도 매우 컸다고 회고하였다. 특히 김영선 소령은 전선에 투입된 이후에도 대대에 대한 교육훈련을 계속하였는데, 그는 전투임무 수행 중에 실시한 교육훈련이 효과가 크다고 평가하였다.⁴⁰⁾ 제28연대 2대대 6중대장이었던 김운기 대위도 395고지 전투가 개시되기 이전부터 아군이 적을 압도할 수 있는 포병

38) "Training Memorandum No. 21," "Command Report, August 1952," ROKA Combat Units.

39) 중앙일보사 편, 『민족의 증언』 6권 (서울: 중앙일보사, 1983), p. 163.

40) 김영선, 『김영선 회고록 : 백마고지의 광영』(서울: 도서출판 팔복원, 1997), pp. 62~63.

화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위안이 되었다고 회고하였다.⁴¹⁾

백마고지 전투가 유례없는 혈전으로 치러진 또 다른 이유는 1952년 가을 즈음에는 국군과 중국군 부대 모두 막강한 포병화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국군에 대한 화력 증강, 특히 포병화력의 증강은 한국군에 대한 재편성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1951년 중반부터 구상되었던 사안이다. 한국군이 화력부족으로 인해 전투에서 고전하는 모습을 관찰한 밴 플리트 미 제8군사령관은 한국군에 대한 재편성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화력증강이 근본적인 문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미군의 장비와 무기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였다.⁴²⁾ 결국 이와 같은 밴 플리트 사령관의 지침에 따라 KMAC은 우선 한국군 각 사단별로 105mm 포병대대를 신설하여 지원토록 하고, 이와 별도로 육군본부 예하에 155mm 1개 대대와 105mm 6개 대대로 구성된 별도의 포병단 6개를 창설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하지만 단순히 포병장비의 지원만으로는 한국군에 대한 포병화력의 증강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었다. 다른 병과와 달리 포병은 장비의 조작과 운영뿐만 아니라 화력운영 전반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병행되어야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KMAC은 조기에 한국군 부대에 포병 운용인력을 육성하며, KMAC 주도하에 포병 부대에 대한 효과적 운영에 관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미 제8군 예하의 포병부대들이 신설된 한국군 포병부대와 연합훈련을 실시하여, 한국군 포병부대에 대한 관리와 훈련을 미군이 감독하였다.⁴³⁾ 그 결과 1952년 초에 전선에 투입된 한국군 보병사단은 최소 1~2개 105mm 포병대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특정 임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육군본부와 미 제8군사령부로부터 다량의 포병화력을 지

41) 김운기, 『철의 삼각지』 (서울: 도서출판 현대문화센타, 1989), p. 268.

42) 전시 한국군에 대한 미 제8군사령부의 포병 증강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나중남, “한국전쟁 중 한국 육군의 재편성과 증강, 1951~1953,” pp. 235~239를 참고할 것.

43) 위의 글, pp. 237~238.

원받아 작전을 전개하였다. 1952년 10월에 실시된 백마고지 전투에서도 국군 제9사단은 105mm 총 4개 대대와 155mm 2개 대대의 화력지원을 받으며 작전을 수행하였다.

한편 1952년 후반기에는 중국군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대규모 포병화력 증강이었다. 1952년 8월에 마오쩌둥은 정치협상회의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현재 우리의 부대는 감소했다. 그러나 장비는 더욱 강화되었다. 우리는 과거 20여 년의 전투를 치렀지만 공군은 없었고, 적이 우리를 폭격하기만 했었다. 현재 공군도 만들어졌다. 고사포와 대포, 탱크도 모두 갖추었다...”라고 주장하면서 자신감을 드러냈다. 또한 1952년 9월의 무기체계는 1951년 7월과 비교해서 큰 차이가 있는데, 비록 여전히 미군에 비해서는 무기와 장비 면에서 열세였으나, 작전조건은 뚜렷하게 개선되었다고 분석하였다.⁴⁴⁾

1952년 후반기에 본격화된 중국군의 포병화력 증가는 국군 및 유엔군에게도 큰 위협으로 인식되었다. 미 제8군사령부는 1952년 봄에 서부전선에서 공격하던 중국군 부대의 대포가 710문에서 884문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4월부터 6월 사이에 중국군이 매일 평균 발사하던 포탄의 숫자가 2,388발에서 6,843발로 증가했다고 분석하였다. 미 제8군사령부는 중국군이 전선에 투입한 이와 같은 화력 증가가 기존과 달리 눈에 띄게 달라진 보급능력의 향상 때문이라고 평가하였다.⁴⁵⁾

중국군의 전투태세에서 드러난 또 다른 변화는 갱도 중심의 지탱점

4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권』(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p. 398.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포(山砲), 야포, 유탄포 총계가 1,141문에서 1,493문으로 증가했고, 그 중에서 야포는 388문에서 507문으로 증가했으며, 유탄포는 347에서 578문으로 증가되었다. 산포는 수량 면에서 기본적으로 변화가 없었다. 고사기관총은 2,291정에서 2,462정으로 증가되었고, 고사포는 805문에서 988문으로 증가되었으며, 로켓발사기는 752개에서 3,028개로 증가되었고, 경박격포는 4,717문에서 4,899문으로 증가되었고, 중박격포는 208문에서 241문으로 증가되었다. 문반동포는 443문에서 1,030문으로 증가되었고, 로켓포는 73문에서 162문으로 증가되었다... 탱크는 125대에서 160대로 증가되었다.”

45)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Washington D.C.: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66), pp. 284~285.

식 방어체계 구축이었다. 중국군은 1951년 하계와 추계 방어작전, 1952년 춘계와 하계 진지공고화 투쟁에서 굳건한 방어, 특히 갠도에 의지해 작전을 수행하는 방어전술을 통해 견고한 진지에 의지해 공격과 방어를 진행하는 작전 경험을 축적시켰다. 이 과정에서 각 부대 및 병종에 따라 고사포병의 후방운송과 엄호, 전선 포병진지의 엄호 및 각급 지휘관과의 협동작전 등 한반도 작전 특성에 맞는 공격 및 방어전술을 숙지한 상태였다.⁴⁶⁾ 따라서 중국군은 장차 진행될 국군 및 유엔군과의 교전에서 고수방어에 성공한 이후, 진지를 중심으로 공격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하였다.⁴⁷⁾

1952년 가을, 정전회담이 포로문제에 대한 협상을 둘러싸고 난항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소위 ‘철(鐵)의 삼각지대’로 알려진 한반도 중앙의 요충지에 자리 잡은 395고지가 가지고 있는 작전 및 지리적 여건은 백마고지 전투를 격전(激戰)으로 이끌었던 또 다른 요소였다. 철원평야 북쪽에 자리 잡은 395고지는 피아간에 서로 확보하지 않을 수 없는 요충지였다. 평강~김화~철원을 연결하는 철의 삼각지는 한반도의 중앙이며, 남북으로 3번, 43번, 47번 도로 등이 관통하는 교통의 요충지였다.⁴⁸⁾ 따라서 미 제8군은 1951년 후반에 고지쟁탈전이 시작된 순간부터 철의 삼각지에 대한 확보를 중시하였다. 이에 따라 미 제8군은 1951년 동계작전 초기에 김화~철원 선을 확보했으나, 휴전의 타결을 모색하던 판문점의 회담으로 인해 평강 공략은 보류하였다.⁴⁹⁾

4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권』, p. 397.

47) 육군 군사연구소, 『중국군 공간사 번역서 : 중국군이 경험한 6.25전쟁 I』 (대전: 육군 군사연구소, 2017), p. 176.

4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백마고지 전투』, pp. 23~24.

49) 아군이 395고지를 확보할 경우 이점은 우선, 철원 평야를 감제하여 철원 및 김화 일대에서 유리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으나, 만약 이 고지를 적에게 빼앗길 경우 미 제9군단의 주저항선이 남쪽으로 고대산 선까지 밀리지 않을 수 없었다. 이로 인해서 철원에서 서울로 통하는 유엔군의 후보급로가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것이었다. 또한 395고지를 점령한 측이 휴전회담에 유리한 차기작전의 발판을 굳히게 된다는 점 등이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휴전회담 고착과 고지쟁탈전 격화』, pp. 396~397.

1952년 6월부터 전 전선에서 고지 쟁탈전이 재개되었는데, 이때 나타난 양상은 대체로 공산군이 주요 전초기지를 선공하여 장악하면, 이를 아군이 역습으로 탈환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그런데 아군의 공격은 빼앗긴 고지의 일부만 탈환하거나 아니면 고지 자체를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⁵⁰⁾ 그리고 1952년 초가을부터는 철원평야 북방의 281고지와 395고지에 대한 중국군 제38군의 본격적 공격이 시작되었다. 395고지와 281고지를 탈취하여 차후작전 수행에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려는 중국군과, 이에 맞서서 이 두 개의 고지를 지켜내려는 국군 제9사단과 프랑스 대대의 전투는 이 시기에 진행된 고지 쟁탈전의 전형이었다. 백마고지 전투에서 성공적으로 방어작전을 수행한 국군이 철원평야 서쪽의 저격능선 방면에서 선제공격을 가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상 이와 같은 치열하게 전개된 고지 쟁탈전에서 중국군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금까지 1952년 10월 초에 시작된 백마고지 전투가 유난히 치열한 격전으로 전개된 이유를 살펴보았다. 앞서 지적했듯이, 성공적으로 전사 훈련을 마친 국군 제9사단의 전투수행 능력과 전투 효율성이 향상된 것은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국군 제9사단은 성공적으로 FTC 훈련을 마친 상태였으며, 또한 전투에 앞서 대대적인 병력 보충이 이뤄져 막강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갖춰진 상태였다. 뿐만 아니라 사단장을 포함한 전 장병이 절치부심(切齒腐心)하여 1951년 5월에 현리전투에서 당했던 치욕스러운 패배를 두 번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고 각오하였기 때문이었다.⁵¹⁾

특히 1952년 5월에 제9사단장으로 부임한 김종오 소장에게는 백마고지 전투가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기회였다. 그는 치욕스러운 패배로 끝난 현리전투에서 국군 제3사단을 지휘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비

5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백마고지 전투』, p. 261.

51) 김영선, 『백마고지의 광영』, p. 57.

록 사단은 바뀌었으나, 그가 제9사단장으로 부임한 이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중국군에게 연전연패했던 한국군 부대의 패전의식을 극복하는 것이었다. 한편 1952년 춘계에 백마고지에 투입된 중국군 제38군은 1950년 10월에 압록강 인근까지 진격한 국군 제6사단에게 치명적 패배를 안겼던 부대였다. 따라서 김종오 장군은 자신에게 두 차례나 패배를 안겨 주었던 중국군 부대를 백마고지에서는 반드시 격퇴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다.⁵²⁾ 대대장과 중대장 등 제9사단의 예하 지휘관들도 1951년 5월에 국군 제3군단 소속으로 중국군에게 당했던 현리전투의 패배를 상기하여 반드시 적을 제압하겠다는 굳은 결의를 앞세웠다.⁵³⁾

요약하면, 국군 제9사단은 1951년 하계에 약 8주 동안 FTC에서 미 제1군단이 주도하는 전시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기동과 화력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사단의 전투수행 방식에 큰 변화를 경험하였다. FTC에서 새로운 전투수행 방식을 체득한 제9사단은 전초전 격으로 치러진 1951년 11월 초의 전투에서 그 효과를 실감할 수 있었다. 이후 1952년 춘계와 하계에는 사단 자체적으로 실시된 실전에 대비한 훈련을 통해서 전투 효율성을 향상시켰다. 이와 더불어 사단장 김종오 소장을 포함한 제9사단의 지휘관들의 작전 지휘 및 전투수행 능력이 향상된 상태에서 백마고지 전투에 임하였다.

1952년 10월이 되자 전 전선에 걸쳐 적의 공세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정찰과 경계를 강화하였다.⁵⁴⁾ 우선 미 제5공군의 항공기가 10월

52) 유현중, 『백마고지 : 김종오 장군 일대기』(서울: 을지출판공사, 1985), pp. 312~315; 양영조, “6.25전쟁의 명장 김종오 장군의 작전술 분석: 춘천전투와 백마고지 전투를 중심으로,” 김종오 장군 선양사업추진위원회 편, 『6.25 한국전쟁과 김종오 장군의 위상』, (제95주년 김종오 장군 탄신제 및 학술대회 자료집, 2016. 5), pp. 37~43.

53) 김영선, 『백마고지의 광영』, p. 57; 김운기, 『철의 삼각지』, pp. 265~267.

54) 백마고지 전투의 구체적인 경과에 대한 기존의 기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전투가 진행된 날짜를 기준으로 전투 경과를 기술한 것인데, 이때 사용된 핵심 사료는 제9사단과 예하 연대의 전투상보에 작성된 날짜별 전투 경과

3일 22:30부터 10월 6일 15:10까지 적의 공격 기세를 사전에 격파할 목적으로 19회에 걸쳐 적 예상 집결지와 포병부대, 접근로 등에 대대적인 폭격을 실시했다. 이에 대해서 적도 포격을 시작하더니, 10월 3일부터는 점차 강화되어 10월 5일에는 하루 만에 약 2,000발의 포탄을 쏟아 부었다. 이와 같은 중국군의 집중포화는 395고지의 아군 방어진지에 대한 파괴사격이었는데, 제9사단이 395고지를 인수한 이래 가장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국군 제9사단은 좌측에 제30연대, 우측에 제29연대를 배치하고, 제28연대를 예비로 확보하였으며, 배속된 제51연대를 대대 단위로 운용하면서 주저항선을 방어하였다. 이 중 백마고지 방어를 담당한 제30연대는 395고지에 제1대대, 중마산 일대에 제2대대, 역곡천 남안에 제3대대를 예비대로 배치하였다. 적은 중국군 제38군단 예하 제114사단 제340, 제324연대가 배치되어 있었으며, 제113사단이 좌인접 미 제2사단 정면에, 제112사단이 제38군단 예비로서 수정덕산 부근에 배치되어 있었다. 작전기간 중 기상은 대체로 청명하였으며 야간에도 월광으로 인하여 비교적 관측이 양호하였다. 특별한 제한요인이 없는 한 월광은 야간공격을 위주로 하는 적에게 유리하였고, 청명한 날씨는 아군의 항공지원에 유리하였다.

제1차 공방전은 10월 6일 아침부터 국군 제9사단 정면을 포격하던

였다.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전투상보』 58권 (제9사단) pp. 657~758; HQ, 9th US Corps, "Special After Action Report Hill 395 (White Horse Mountain) 6-15 October 1952." 두 번째는 12차례에 걸쳐 실시된 공방전을 중심으로 기술하는 것인데, 이러한 기술은 KMAG에서 작성한 Command Report의 내용을 따른 것이다. 8202nd Army Unit, US Military Advisory Group, "Command Report, Oct. 1952, ROKA Combat Units, KMAG, 9th ROK Division, etc." 이후에 작성된 공간사 서술에서도 위의 두 가지 기술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서술하고 있다.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下)』(1997), pp. 389~39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10권: 휴전회담 고착과 고지쟁탈전 격화』(2012), pp. 396~430. 이 글에서는 2012년에 발간된 공간사의 내용을 중심으로 총 12차례의 공방전 전개 과정을 정리하였다.

중국군이 야음이 내리기 시작하던 19:00경부터 제114사단 예하 1개 대대 규모를 395고지에 대한 정면에 투입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날 공격에서 적은 395고지 공격에 앞서 좌인접 미 제2사단 방어지역과 서남방 3km 지점의 281고지에 대해서도 대규모 공격을 병행하였다. 적의 공격이 시작되자 아군 포병이 일제히 포격을 실시했는데, 특히 국군 제9사단을 지원하던 미 제213포병대대와 미 제955포병 대대가 효성동 일대의 적 예상 포진지와 집결지에 155mm의 포격을 집중하였다. 제30연대는 3차에 걸쳐 진행된 치열한 공방전 끝에 약 1시간 만에 적을 격퇴하였다.

약 30분 만에 시작된 5개 중대 규모의 적이 두 번째 공격을 시작하자, 제9사단 지휘부는 일대 혼란에 빠졌다. 특히 약 3시간 동안 진행된 공격에서 적의 선두 일부가 395고지 주봉 인근까지 진격함에 따라 제9사단장은 즉시 제28연대 1대대와 사단 수색중대를 투입하여 역습하기로 결정하였다. 395고지 정상까지 접근한 적과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던 와중에 제30연대와 제28연대 1대대의 효과적인 방어작전으로 인해 적은 퇴각하였다.

두 차례의 공격에서 막대한 인명손실을 입은 적은 불과 1시간 만에 제3차 공격을 감행하였다. 이번 공격에서는 지금까지의 공격과 달리 약 1,000여 발에 달하는 포격을 쏟아 부은 이후, 약 2개 대대 규모의 병력을 395고지 정상을 향해 여러 방면에서 투입하였다. 이에 따라 제9사단장은 즉시 항공기에 의한 전술폭격을 요청하는 한편, 사단의 전 지원포병의 화력을 주진지 전면에 집중시켰다. 이후 약 5시간 동안 지속된 야간전투에서 미군의 B-29 폭격기로부터 155mm 야포에 이르기까지 대대적인 화력지원이 집중되었으며, 이후 395고지 주봉과 화랑고지 인근까지 접근한 적과 아군 사이에 근접전투가 실시되었다. 하지만 제3차 공격에서 아군은 압도적 화력으로 적을 격퇴하려 했으나, 중국군이 화랑고지 전방 무명고지에 거점을 확보한 채 종료되었다.

제4차 전투는 화랑고지 전방 무명고지에 진지를 구축한 중국군을 격퇴하기 위한 아군의 공격으로 개시되었다. 아군의 공격이 시작되자마자 적의 포병화력이 아군 진지에 집중되었으며, 곧이어 아군의 폭격기와 포병에 의한 무차별적 대규모 화력지원이 이어졌다. 약 12시간 넘게 지속된 공방전 중에는 아군의 포병 사격이 잠시 멈춘 사이에 5개 중대 규모의 적이 395고지 주봉을 향해 공격해 왔으며, 백마고지 전투가 개시된 이후 최초로 주봉이 적에게 장악되었다. 하지만 제28연대 2대대가 시기적절하게 역습을 감행하였으며, 치열한 교전 끝에 395고지를 상실한 지 약 4시간 만에 주봉을 탈환하였다.

백마고지 정상을 빼앗긴 적은 약 5시간 후에 또 다른 공세를 개시하였는데, 기존에는 야간공격만 고집하던 중국군이 처음으로 주간공격을 감행한 것이 특징이었다. 이후 공격 개시 약 2시간 만에 압도적인 규모의 적이 395고지 정상을 탈취했으며, 후퇴한 아군은 즉시 포병사격과 항공 화력을 요청하였으나 일부 우군 피해가 발생하는 등 혼란이 가속되어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오후에 전열을 가다듬은 아군은 17시 경에 제28연대 3대대를 앞세워 반격을 개시하고, 이에 맞춰 항공기와 포병화력을 395고지 정상에 집중하는 등 본격적인 야간전투에 돌입하였다. 이후 피야간에 치열한 교전이 발생하였으며, 마침내 아군이 395고지를 탈취당한 지 15시간 만인 23시경에 이를 재탈환하였다.

그러나 이전 전투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중국군이 불과 1시간 여 만에 또 다시 제6차 공세를 재개함에 따라 백마고지 정상 일대에서 방어준비에 나선 제28연대 3대대 장병들은 긴장하기 시작했다. 395고지의 주봉을 차지하기 위해 피아의 병력이 수류탄 투척거리까지 근접하여 교전을 벌이는 등 백마고지 전투가 시작된 이래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제6차 공방전에서는 국군 부대가 395고지 남동쪽 능선에서도 밀려나면서 심각한 위기에 내몰리기도 했다. 하지만 제9사단장은 제29연대를 다시 투입하기로 결심하고, 이를 위해 제53전차중대를 제29연

대에 배속하여 395고지에서 활동하는 적 직사화기를 제압토록 하였다. 또한 미 공군기가 10~30분 간격으로 출격하여 395고지 일대를 대대적으로 폭격하였다. 이와 같은 지원에 힘입어 제29연대 1대대와 3대대는 10월 9일 15시 경에 다시 395고지 정상을 탈환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후 적의 역습을 저지하기 위해서 제29연대는 395고지 전방의 화랑능선까지 진출하여 적을 격퇴하였다.

10월 9일 야간에 계속된 공방전에서 아군 화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퇴각한 중국군은 10월 10일 미명을 기해 1개 대대 규모의 부대를 395고지로 직접 향하는 능선 접근로에 투입하여 공격을 재개하였다. 이후 약 1시간 만에 395고지 9부 능선까지 진출한 적과 아군 사이에 치열한 백병전이 전개되었으나, 시기적절하게 도착한 아군 증원부대에 힘입어 일시적으로 빼앗겼던 395고지 주봉을 06:30경에 탈환하고 적을 격퇴하였다.

하지만 불과 1시간 30분 후에 중국군이 제8차 공세를 개시함에 따라 395고지 사수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 특히 10월 11일 오전에는 안개가 395고지 일대를 뒤덮자 아군 후방의 포병 및 항공기에 의한 화력지원이 제한되어 결국 적과 치열한 근접전을 치를 수밖에 없었다. 또한 전장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아군 오탁에 의한 우군피해가 발생하자, 아군 진지에 혼란이 발생하였다. 오전 09:30경부터 불과 300m의 거리를 두고 적과 치열한 교전을 벌였고, 이후 제29연대 2대대가 역습을 개시하여 13:20경에 중국군을 고지 정상에서 몰아내고 진지를 탈환하였다.

제8차 공세에서 제29연대 2대대의 역습으로 395고지를 탈환한 제9사단장은 제30연대에게 즉시 화랑고지 일대를 향해 진격하여 적을 추격하도록 지시하였다. 하지만 아군의 의도를 파악한 적이 대규모 포격을 실시함에 따라 아군의 추가 공격은 실시되지 못했다. 그러던 중 10월 10일 18시경에 중국군 2개 대대 규모가 은밀하게 화랑고지에서 주봉

방향으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적에 의해 불의의 기습을 당한 아군은 일시적으로 395고지 정상을 빼앗겼으나, 다음날 정오경에 제29연대와 제30연대가 협공으로 고지 정상을 다시 탈환하는 데 성공하였다.

하지만 백마고지 정상에서 쫓겨난 적군은 불과 3시간 만에 다시 5개 중대 규모의 병력을 투입하여 공세를 개시하였다. 10월 11일 오후에 시작된 제10차 공방전에서 중국군이 아군 방어진지에 최대한 은밀하게 접근한 뒤 395고지 정면으로 직접 공격을 개시함에 따라 아군의 후방 화력지원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했다. 그 결과 아군 제29연대 2대대 방어 병력은 적의 압도적인 공격에 밀려 후퇴하였으며, 결국 20:00경에 백마고지 정상을 적에게 내주고 말았다. 이와 같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처한 제9사단장은 제30연대에게 반격을 지시하여, 이튿날 13:00경에 395고지 탈환에 성공하였다.⁵⁵⁾ 제10차 공방전을 끝으로 적은 더 이상 395고지 주봉에 접근하지 못했으며, 이후 395고지 정상 일대에서 아군의 방어진지 구축이 시작되었다.

중국군 약 1개 대대 병력에 의해 개시된 제11차 공방전은 1시간 정도 지속되었고, 적은 395고지 정상 일대에 강력한 방어진지를 구축한 아군의 진지를 돌파할 수 없었다. 결국 많은 사상자를 내고 퇴각한 적은 불과 세 시간 후에 야음을 틈타 다시 395고지 동쪽 능선 방면으로 공격을 개시하였으며, 이 공격은 10월 13일 새벽 04:00까지 지속되었다. 하지만 아군은 395고지 정상 일대에 강력한 진지를 구축한 방어선을 중심으로 적의 공격을 막아냈으며, 이 사이에 적에게 연속적인 타격을

55) 제10차 공방전에서 활약한 제30연대 1대대의 강봉우 소위, 오귀봉 하사, 안영권 하사는 소대원과 함께 수류탄을 뿜아 들고 적진에 뛰어들어 기관총 진지를 폭파하고 자신들도 현지에서 장렬하게 전사하였다. 이들의 희생 덕분에 제1중대는 일제히 돌격하여 13:00경에 백마고지 정상을 탈환할 수 있었다. 이 정상 탈환을 마지막 막으로 적은 다시 395고지 정상에 접근하지 못했으며, 이날 수훈을 세운 세 명의 용사를 '백마고지 3군신(三軍神)'으로 추앙하고 있다.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백마고지 전투』, p. 212; 조성훈, “한국 현대사와 전쟁영웅 : 희생과 기여의 스토리,” 조성환 외, 『대한민국 국방사』(서울: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2017), p. 345.

가해 중국군을 화랑고지 너머로 몰아내는 데 성공하였다. 이후 제9사단장은 후방에 예비로 준비 중이던 제28연대를 화랑고지 방면으로 진출시켜 적을 추격하였으며, 이어서 제29연대가 화랑고지 전면까지 진출함에 따라 적을 완전히 격퇴하였다. 돌이켜 보건대, 국군 제9사단은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백마고지에서 중국군 제38군 예하 3개 사단의 공격을 받아 10여 일간 12차례의 쟁탈전을 반복하여 7회나 395고지 주봉의 주인이 바뀌는 혈전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끝까지 백마고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다.

4. 국군 제9사단의 전투수행 능력 분석

백마고지 전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를 입체적으로 검토하면 국군 제9사단이 이 전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휘한 향상된 전투수행 능력의 실체를 분석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살펴볼 자료는 총 12차례의 공방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견된 전투별 교전 지속시간, 교전 사이의 간격, 피아 투입부대 규모, 사상자 규모, 탄약 소모량 등이다. 이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백마고지 전투에 대한 입체적, 다각적 이해가 가능하며, 또한 이 전투를 성공적으로 이끈 국군 제9사단의 전투수행 방식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가장 먼저 분석할 자료는 약 12회로 진행된 공방전의 지속 시간, 각 교전 사이의 간격 등인데, 이를 종합하면 다음의 <표 #1>와 같다.

〈표 #1〉 교전 지속 시간 및 교전 사이 간격⁵⁶⁾

구분	교전 개시	교전 종료	지속 시간	교전 사이 간격	비고
1차	10. 6. 19:15	10. 6. 20:15	60분(1h)		
2차	10. 6. 20:40	10. 7. 00:00	200분(3h 20m)	25분	
3차	10. 7. 00:40	10. 7. 05:10	270분(4h 30m)	100분(1h 40m)	
4차	10. 7. 14:00	10. 8. 02:40	760분(12h 40m)	590분(9h 50m)	정상 쟁탈전
5차	10. 8. 02:40	10. 8. 23:05	1,125분(19h 25m)	0분	정상 쟁탈전
6차	10. 9. 00:20	10. 10. 00:30	1,450분(24h 10m)	85분(1h 25m)	정상 쟁탈전
7차	10. 10. 00:30	10. 10. 06:40	370분(6h 10m)	0분	정상 쟁탈전
8차	10. 10. 08:00	10. 10. 13:20	320분(5h 20m)	80분(1h 20m)	정상 쟁탈전
9차	10. 10. 15:20	10. 11. 12:04	1,240분(20h 40m)	120분(2h)	정상 쟁탈전
10차	10. 11. 12:15	10. 12. 13:20	1,485분(24h 45m)	11분	정상 쟁탈전
11차	10. 12. 13:40	10. 12. 16:50	130분(2h 10m)	20분	
12차	10. 12. 19:50	10. 15. 11:00	425분(7h 5m)	180분(3h)	

위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대체로 395고지 정상 탈취를 둘러싼 공격과 탈취, 역습 등의 순서로 전개된 교전의 지속시간은 그렇지 않은 교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진행되었다. 특히 4차, 5차, 6차, 9차, 10차 공방전은 최소 12시간, 최장 24시간이 넘게 지속된 전투였다. 반면에 7차와 8차 공방전에서는 395고지 정상을 뺏고 빼앗는 치열한 전투가 전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6시간 정도 만에 종료되었다. 물론 6차 공방전과 7차 공방전 사이의 간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전투 지속 시간 구분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두 전투에 참가한 아군의 교전부대가 상이했기 때문에 이때의 교전시간은 유의미하다.

이와 같은 데이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1951년 초의 사창리 전투, 횡성 전투, 현리 전투 등지에서 국군 부대가 적과 제대로 교전조차 하지

56) 8202nd Army Unit, US Military Advisory Group, "Command Report, Oct. 1952, ROKA Combat Units, K MAG, 9th ROK Division, etc."

못하고 붕괴되었던 과거의 전투와 달리, 국군 제9사단의 예하부대는 24시간이 넘게 중국군에 맞서 밀고 밀리는 접전을 지속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휘관의 상황에 맞는 리더십, 전투원의 전투의지와 이들을 지원하는 충분한 장비와 보급품, 공격과 방어에 필수적인 화력지원 등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 했다. 이처럼 백마고지 전투에 임한 국군 제9사단의 전투수행 능력이 향상되었으며, 이를 통해서 적을 압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각 교전의 간격, 즉 전투기간 중 일시적으로 총성과 포성이 멈췄던 시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1차부터 3차까지의 공방전은 거의 연속적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4차부터 11차 공방전이 진행되는 약 8일 동안 교전이 멈춰진 시간은 고작 8시간 30분 정도에 불과했다. 10월 7일 오후부터 15일 정오경까지 백마고지에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투가 벌어졌으며, 이 기간 중에 총성과 포격이 멈췄던 시간은 길어야 2시간 이내였다. 또한 4차와 5차 공방전, 6차와 7차 공방전은 쉴 사이 없이 곧바로 진행된 연속전투였으며, 9차부터 11차 사이의 전투도 거의 멈추지 않고 지속되었다. 이처럼 수차례 교전이 거의 쉴 새 없이 지속되었는데, 이를 통해서 국군 제9사단의 사단장과 연대장의 효율적 부대교체와 전투운영, 향상된 작전지휘 능력을 엿볼 수 있다. 전투 기간 중 사단장을 포함한 국군 제9사단의 주요 지휘관들은 395고지 탈환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전투의 구체적 상황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이에 대처하였다. 특히 전황이 유리하거나 불리한 상황에 대한 조치사항을 미리 준비하였으며, 매번 주도적으로 전황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적에 비해 더 많은 병력과 화력을 투입하여 395고지 주봉을 장악하는 데 모든 노력을 집중하였다.

두 번째로 살펴볼 자료는 일곱 차례나 395고지 정상을 뺏고 빼앗는 격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피아가 각각의 전투에 투입한 병력규모와 사상자, 보충 병력 등이다. 먼저 총 12차례의 공방전을 벌이는 동안 각

전투에 투입된 피아의 투입부대 규모는 다음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2> 전투별 피아 투입부대 규모⁵⁷⁾

구분	아군 규모			적 규모	비고
	최초 투입	역습 / 반격	계		
1차	30연대 1·3대대		2개 대대	1개 대대	
2차	30연대 1·3대대	28연대 1대대	2+1개 대대	5개 중대	
3차	30연대 1·3대대 28연대 1대대		3개 대대	2개 대대	
4차	30연대 1·3대대	28연대 1·2대대	2+2개 대대	5개 중대	정상 쟁탈전
5차	28연대 1·2대대 30연대 1대대	28연대 3대대	3+1개 대대	3개 대대	정상 쟁탈전
6차	28연대 1·3대대 30연대 1·3대대	29연대 1·3대대	4+2개 대대	4개 대대	정상 쟁탈전
7차	28연대 1·3대대 29연대 1·3대대		4개 대대	1개 대대	정상 쟁탈전
8차	28연대 1·3대대 30연대 1대대	29연대 1·3대대	3+2개 대대	1개 대대	정상 쟁탈전
9차	28연대 1·3대대	29연대 1·3대대 30연대 2·3대대	2+4개 대대	2개 대대	정상 쟁탈전
10차	28연대 1·3대대	29연대 1·2대대 30연대 1·2대대	2+4개 대대	5개 중대	정상 쟁탈전
11차	30연대 3대대, 29연대 3대대	30연대 1대대	2+1개 대대	1개 대대	
12차	30연대 1·3대대	28연대 1·3대대 29연대 1·2대대	2+4개 대대	2개 대대	

이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최초로 395고지 정상에 대한 쟁탈전이 개시된 시기는 10월 7일 오후이고, 제4차 공방전부터였다. 이때부터

57) HQ, 9th US Corps, "Special After Action Report Hill 395 (White Horse Mountain) 6-15 October 1952"

백마고지 전투가 가장 치열한 격전으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전투에서 중국군의 공격부대는 대체로 아군의 방어병력에 비해 1/2 혹은 1/3수준이었는데, 주로 야간공격을 통해서 아군이 방어하는 395고지 정상을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하지만 아군은 정상에서 밀려난 즉시적 병력의 2~3배에 해당하는 예비대를 동원하여 역습 및 반격을 개시하여 고지 정상을 반복적으로 재탈환하였다. 한편, 전투에 투입된 규모 면에서 가장 많은 피아 병력이 투입된 시기는 10월 8일부터 12일 사이에 진행된 5차부터 10차까지의 공방전이었으며, 이 시기에 아군은 평균적으로 5개 대대 규모의 병력, 적군은 약 2개 대대 이상의 병력을 투입하여 교전하였다.

또한 이 자료에서는 국군 제9사단장 김종오 장군을 포함한 예하 지휘관들이 매 전투마다 효율적으로 주력부대를 지정하고, 시기적절하게 예비대를 편성하여 투입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395고지 주봉에 대한 쟁탈이 이뤄졌던 4차부터 10차에 이르는 공방전에서는 결정적 시간과 장소에서는 항상 아군의 투입병력과 화력이 적의 병력 규모와 화력을 압도하였다. 이러한 조치가 가능했던 이유는 국군 제9사단의 지휘관들이 치열하게 지속되는 395고지에서의 불확실한 전투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강력한 예비대를 보유한 뒤, 이들을 적절한 시기에 투입하여 전체적으로 전황을 유리하게 전개하려 하였기 때문이었다.

한편 백마고지 전투 기간 중 발생한 피아의 사상자 데이터는 다음의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3) 피아 인명손실⁵⁸⁾

(단위: 명)

구분	적			구분	아군				
	국군 제9사단 전투상보	미 제9군단 보고서	중국군 공간사		국군 제9사단 전투상보			미 제9군단 보고서	
					장교	사병	계		
전사	확정	8,234	2,695	1,748	전사	22	483	505	421
	추정	6,098	1,873						
	항공		707						
부상(추정)	1,001	4,241	3,062	부상	93	2,423	2,516	2,391	
포로	57	51	562(실종)	실종	2	389	391	507	
계	15,390	9,567	5,372	계	117	3,295	3,412	3,319	

위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약 10일 동안의 전투에서 국군 제9사단의 총 사상자는 약 3,000여 명이었다. 이중에서 전사자는 전체 사상자의 약 1/6 정도이며, 실종자도 10% 이상이니, 전체 사상자 중에서 전사자와 실종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⁵⁹⁾ 중국군 제38군의 인명손실에 대한 기록은 파악하는 주체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데, 이중에서도 전사자와 부상자의 숫자에서 큰 격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약 10일 동안 백마고지 전투를 수행하는 동안 국군 제9사단에 발생한 전체 사상자 규모는 1951년 2월 11~13일 사이에 횡성전투에서 국군 제8사단에서 발생한 총 7,464명(대부분 포로 및 실종자)의 사상자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다.⁶⁰⁾ 반면 미 제23연대전투단이 1951년 2월

58) HQ, 9th US Corps, "Special After Action Report Hill 395 (White Horse Mountain) 6-15 October 1952"; 8202nd Army Unit, US Military Advisory Group, "Command Report, Oct. 1952, ROKA Combat Units, KMAG, 9th ROK Division, etc."

59) 중국군 공간사에서는 백마고지 전투 중에 발생한 국군 제9사단의 인명 손실을 총 9,300여 명으로 추산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권』, p. 420.

60) Coleman, *Wonju: The Gettysburg of the Korean War*, p. 157.

중순에 지평리 전투에서 중국군 약 5개 사단과 약 5일 동안 대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상자는 총 342명(사망 51명, 부상 250명, 실종 42명)에 불과했으나, 제9사단이 수행한 백마고지 전투에서 훨씬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⁶¹⁾ 또한 6.25전쟁에서 미군이 수행한 대표적인 고지쟁탈전으로 알려진 단장의 능선 전투(the Battle of Heartbreak Ridge, 1951. 9. 13~10. 15)를 수행한 미 제2사단과 프랑스 대대에서 약 1달 동안에 발생한 사상자가 총 3,736명(전사 597명, 부상 3,055명, 실종 84명) 정도였는데, 이 숫자는 제9사단이 10일 동안 백마고지 전투에서 입은 인명피해 규모와 비슷하다.⁶²⁾ 또한 미 제3사단이 1953년 7월 13~20일 사이에 폭잡고지(the Pork Chop Hill) 전투를 수행하는 동안 발생한 사상자는 총 1,118명(사망 52명, 부상 894명, 실종 172명)이었는데, 이 숫자는 백마고지 전투에서 발생한 국군 제9사단 사상자의 약 1/3 정도였다.⁶³⁾ 이처럼 6.25전쟁 중에 발생한 다른 전투와 비교할 때, 1952년 10월의 백마고지 전투에서 발생한 제9사단의 사상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그만큼 이 전투가 치열하게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작전 기간 중 제9사단에는 총 1,836명의 신병이 보충되었는데, 이는 당시로서는 유례가 없던 일이다. 제9사단의 병력 증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0월 10일에는 890명(장교 1명, 사병 889명), 10월 11일에는 312명(장교 14명, 사병 298명), 10월 12일에는 366명(장교 17명, 사병 349명), 10월 15일에는 사병 300명이 등이었다. 백마고지 전투 초기까지 일일 단위로 장교와 사병이 고작 10명 이내로 보충되었으나, 백마고지에서 진행되는 혈전 소식이 알려지면서 육군본부가 가용한 보

61) Ryan, *Battle of Chipyong-ni, 13-15 February 1951*, Tab C.

62)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Special Staff, US Army, *Action on 'Heartbreak Ridge,'* p. 17, 18, 26, RG 319, Records of the Army Staff, 1903-1960, Background Files to the Study, "Combat Action in Korea," 1951-1960, NARA.

63) McWilliams, *On Hallowed Ground: The Last Battle for Pork Chop Hill*, p. 416.

충병력을 우선적으로 제9사단에 할당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보충된 병력들은 각 연대와 대대에 배치되었으며, 기존의 전투원들과 힘을 합쳐 전투 후반기에 전세를 역전하고 전황을 유리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일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자료는 백마고지 전투가 진행되던 약 10일 동안 전투에 사용된 각종 화력장비의 포탄 소모량과 폭격의 규모이며, 이를 아래의 <표 #4>와 <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4> 피아 포병 사격 및 아군 항공 지원⁶⁴⁾

일시/기간	적 포병(발)	아군			비고
		포병(발)	항공기		
			소티(회)	폭탄량(lb)	
10. 5 ~ 6	1,468	2,183	55	83,200	
10. 6 ~ 7	10,910	19,428	61	115,800	
10. 7 ~ 8	2,226	12,251	76	117,480	정상 쟁탈전
10. 8 ~ 9	12,024	31,102	52	49,100	정상 쟁탈전
10. 9 ~ 10	4,474	19,222	46	48,820	정상 쟁탈전
10. 10 ~ 11	4,340	23,455	90	224,160	정상 쟁탈전
10. 11 ~ 12	3,430	18,940	200	216,760	정상 쟁탈전
10. 12 ~ 13	5,467	23,023	76	128,680	정상 쟁탈전
10. 13 ~ 14	5,768	18,587	70	142,300	
10. 14 ~ 15	4,631	19,808	19	16,000	
계	54,738	187,999	745	1,142,300	

이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군은 전투 초기인 10월 6~7일, 8~9일에 가장 많은 포병사격을 실시하여 국군 제9사단을 몰아붙여 395고지를 신속하게 탈취하려 하였다. 반면에 아군은 10월 8~15일까지 매일 평균 약 20,000발이 넘는 포병사격을 실시하였는데, 이 기간 중에는 395고지 주봉에 대한 쟁탈전이 치열하게 전개되었고, 이 과정에서 포병이 막강한 화력을 지원하여 교전부대의 작전을 지원하였다. 한편 작

64) 8202nd Army Unit, US Military Advisory Group, "Command Report, Oct. 1952, ROKA Combat Units, KMAC, 9th ROK Division, etc."

전기간 전체에 걸쳐 아군 항공기에 의한 폭격도 실시되었는데, 주로 395고지 정상을 둘러싸고 치열하게 전투가 전개되던 10월 10일부터 12일 사이에 가장 많은 출격과 막대한 분량의 폭탄이 집중적으로 투하된 것을 알 수 있다.

아래 <표 #5>에서는 작전기간 중 아군이 운용한 다양한 포병 화기의 일자별 탄약 소모량을 파악할 수 있다. 대체로 국군 제9사단을 직접 지원하던 105mm 4개 포병대대가 화력지원의 주축을 이뤘으며, 미군이 운용한 155mm 2개 포대와 4.2" 중박격포 1개 중대가 전방 교전부대에 대한 화력지원에 가세하였다. 시기적으로는 중국군이 최초로 395고지 주봉을 점령한 10월 7~9일 사이, 그리고 아군이 395고지 주봉을 완전히 점령한 뒤 강력한 방어진지를 구축하려던 10월 10~12일 사이에 가장 많은 포탄이 소모되었다. 즉, 395고지 전투가 가장 격렬하게 전개되는 순간에 아군 포병 및 항공지원 부대가 가장 많은 화력지원을 제공함에 따라 전장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전투부대가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표 #5> 일자별 탄약 소모량⁶⁵⁾

(단위: 발)

구분	105mm				155mm		4.2"	계
	제51 포병대대	제52 포병대대	제50 포병대대	제30 포병대대	미 제213 포병대대	미 제955 포병대대	제9중박격포중대	
10. 6~7	4,054	6,214		3,550	1,002	2,648	3,597	21,065
10. 7~9	1,550	13,125	6,778	13,807	12,999	11,751	3,179	63,189
10. 9~10	199	6,900	1,933	4,157	2,757	332	776	17,054
10. 10~12	11,857	27,817	14,586	21,741	6,973	2,226	3,296	88,496
10. 13~15	4,029	4,000		5,406	12,595	5,054	5,021	36,105
계	21,689	58,056	23,297	48,661	36,326	22,011	15,869	225,909

65)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전투상보』 58권 (제9사단), pp. 657~758의 일자별 기록을 정리한 자료임. 395고지 전투 기간 중 국군과 미군이 사용한 포병 탄약의 분량은 약 7만여 발 정도의 차이가 있다. 이들 차이는 국군의 기록과 미군의 기록에서 발생하는 것인데, 이들 중 어느 기록이 정확한 것인지를 확정하기 힘들다.

이상에서 제시한 자료를 통해 국군 제9사단의 전투수행 방식에 큰 변화가 있음을 잘 파악할 수 있다. 국군 제9사단은 과거의 병력 중심(man-power based) 전술에서 벗어나 화력과 기동(firepower & mobility)이 결합된 전술을 구사하였으며, 보병과 포병, 보병과 전차의 협동전술을 무리 없을 정도로 구사하여 임무를 완수하였다. 또한 국군 제9사단은 395고지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포병부대와 공군의 화력지원을 적절하게 이용하여 전투를 수행해야 했으며, 특히 보포 및 보전협동 공격을 통해 고지 정상에 대한 탈환과 더불어 적의 공격을 격퇴하는 임무를 완수해야 했다. 이처럼 국군 제9사단은 싸우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 전투수행 능력을 향상시켰으며, 이를 통해서 대규모의 적을 압도할 수 있었다.

한편 백마고지 전투 기간 중 사용된 포탄 사용량을 다른 전투와 비교하면 백마고지 전투의 상대적 치열도를 파악할 수 있다. 우선 미 제3사단 15연대가 1951년 9월 24일부터 10월 6일까지 Hill 487과 Hill 477에서 수행한 전투(Battle of Bloody Angel)에서 총 61,836발(105mm 48,576발, 155mm 13,260발)의 포탄을 사용한 반면, 백마고지 전투에서는 약 10일 동안 20여만 발의 포탄이 사용되었다.⁶⁶⁾ 미 제2사단과 프랑스 대대가 1951년 9월 13일부터 30일까지 17일 동안 수행한 단장의 능선 초기 전투에서 사용된 총 포탄은 221,579발(105mm 184,191발, 155mm 37,388발)이었으며, 항공기에 의한 폭격지원은 총 25회, 440 소티였다.⁶⁷⁾ 또한 미 제3사단이 1953년 7월 13~20일에 폭찹고지(the Pork Chop Hill) 전투를 수행하는 7일 동안 사용한 탄약은 총 115,763발로 집계되었는데, 이 숫자는 백마고지 전투에서 사용된 포탄 숫자와 유사하다.⁶⁸⁾

66) 5th Historical Detachment, EUSAK, *The Battle of Bloody Angel*, 30 January 1952.

67) "Heartbreak Ridge, September-October, 1951," Special Report, G-3 Section, 2nd Infantry Division.

68) 폭찹고지 전투에서 중국군이 사용한 포탄은 약 71,826발인데, 이는 백마고지 기간

백마고지 전투는 전투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다. 국군 제9사단이 중국군 제38군을 상대로 395고지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고지쟁탈전을 수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양측 군대는 물론이고 국내외의 언론사에서 관심을 표명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심의 상당 부분은 1951년에 현리전투에서 붕괴에 가까운 패배를 당한 제9사단이 1년 반 이후에 약 세 배에 달하는 중국군을 상대로 격전을 벌이고 있다는 점에 집중되었다. 동아일보를 포함한 국내 주요 신문들은 1952년 10월 9일부터 백마고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투를 대대적으로 보도하였으며⁶⁹⁾, 이후 국군 제9사단의 승전이 예상되는 10월 12일부터는 각 신문사가 앞 다투어 백마고지의 전황을 자세하게 보도하기 위한 경쟁을 벌였을 정도였다.⁷⁰⁾ 미국의 *The New York Times*도 백마고지 전투가 종료된 이후 국군 제9사단의 승리를 자세하게 전송하면서, 이번 전투에서의 승리를 통해 전시 한국군의 재편성과 증강을 다시 평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⁷¹⁾

백마고지 전투가 진행되는 동안 이승만 대통령과 밴 플리트 사령관을 포함한 주요 인사들이 국군 제9사단을 방문하여 성공적인 전투수행을 격려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10월 12일에는 경무대에서 국군 제9사단의 성공적인 작전수행을 찬사하는 축하 전문을 보내서 사단장 김종오 소장을 격려했다. 또한 다음날 오후에는 직접 밴 플리트 미 제8군사령관과 함께 국군 제9사단 사령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즉석에서 “자네들이 막강한 미군 사단들 못지않게 용감하게 승리해 주고, 국위를

중에 중국군이 사용한 포탄 양보다 많다. McWilliams, *On Hallowed Ground: The Last Battle for Pork Chop Hill*, p. 417.

69) “一年來最大激戰,” 동아일보, 1952년 10월 9일 ; “피에 물든 백마고지,” 경향신문, 1952년 10월 11일.

70) “白馬高地 固守, 十二日夜 狂信的 反擊 敵을 屠戮,” 동아일보, 1952년 10월 14일; “북을 치는 中共, 遺棄屍體五百,” 경향신문, 1952년 10월 15일.

71) “South Korean Troops Improved in Combat,” *The New York Times*, 19 October 1952.

선양하고 있기에...”라고 연설하였다.⁷²⁾ 이승만 대통령은 백마고지 전투가 완전히 종료된 이후에도 다시 한 번 제9사단 사령부를 방문하여 사단장 김종오 소장을 포함한 일선 지휘관과 장병들을 격려하였다.⁷³⁾

한국에 부임한 이후 국군 제9사단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밴 플리트 미 제8군사령관은 백마고지 전투가 치열하게 전개되던 10월 9일에 사단장 김종오 소장을 방문하여 당시까지의 전황을 보고받은 이후, “승리를 기대한다”고 격려하면서 국군 제9사단에 대한 최대한의 지원을 약속하였다.⁷⁴⁾ 국군 제9사단의 성공적인 작전수행 능력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밴 플리트 사령관은 지인에게 보낸 10월 10일자 서신에서 “제9사단이 철원에서 수행 중인 성공적인 작전 수행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한다.(I am extremely proud of the splendid work of the 9th ROK Division in the Chorwon area.) 본인은 제9사단이 중국군을 완전히 격퇴시킬 것으로 확신한다.”고 평가하였다.⁷⁵⁾ 이와 같은 밴 플리트 사령관의 격려와 후원에 대해 김종오 소장은 훗날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집중되고 있는데, 국군의 위신과 제9사단의 명예를 위하여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였다”고 당시의 심정을 회상하였다.⁷⁶⁾

국군 제9사단을 지휘하던 미 제9군단장 루벤 젠킨스(Reuben E. Jenkins) 소장은 백마고지 전투가 종료된 직후 제9사단에 표창을 주었

7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백마고지 전투』, p. 243 ; 대한민국 국방부, 『한국전란 3년지』(서울: 대한민국 국방부 정훈부, 1954), p. B-56.

7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백마고지 전투』, p. 244.

74) 위의 책, p. 244.

75) Van Fleet to Major General Orlando C. Mood, 10 October 1952, Van Fleet Papers, Box 71. 밴 플리트 장군이 Mood 소장에게 보낸 이 편지는 백마고지 전투가 한창 진행 중이던 시점에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만한 사료이다. 왜냐하면 이 편지가 작성된 시점에는 아직 백마고지 전투가 종료되지 않았으나, 밴 플리트 장군은 국군 제9사단의 작전수행 능력을 신뢰하였으며, 결국 국군 제9사단이 백마고지를 장악할 것을 확신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7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백마고지 전투』, p. 244.

으며, 사단장과 일선 지휘관이 보여준 탁월한 전투 지휘와 전투원들의 우수한 전투수행 능력을 치하하였다.⁷⁷⁾ 그는 또한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도 국군 제9사단의 전투수행 능력을 칭찬하였는데, 사단장 김종오 소장의 적절한 부대 교체, 예하 부대의 우수한 전술적 전투수행 능력, 한국군 장병의 강인하고 용감한 전투 의지를 제9사단이 백마고지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 꼽았다.⁷⁸⁾

미국과 중국의 공간사도 백마고지 전투와 국군 제9사단의 성공적인 작전수행에 대하여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미국의 공간사는 백마고지에서 제9사단이 보여준 작전 수행은 “완벽한 전투 준비, 효과적인 정보 활용, 효율적 전술구사, 공중과 포병, 기갑에 의한 강력한 화력지원이 원활하게 들어맞은 최고의 전투 사례(a prime example)”였으며, 1952년 여름부터 마크 클라크(Mark Clark) 유엔군사령관이 요구했던 여러 가지 요소가 제대로 결합된 완벽한 전투의 전형이라고 분석하였다.⁷⁹⁾ 중국 공간사는 8박 9일 동안 지속된 281.2고지와 394.8고지 전투에서 중국군이 성공하지 못한 원인을 “너무 급하게 작전을 전개했고, 목표 선정이 적당하지 않았으며, 지형이 불리했고, 작전계획이 노출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또한 1952년 추계 공세에서 중국군이 점령 목표로 선정한 23개의 고지 중에서 오직 제9사단 정면의 두 개 고지에 서만 점령에 실패했다고 분석하였다.⁸⁰⁾

77) Major General Reuben E. Jenkins, “Citation - Command General 9th Division, ROKA,” 22 October 1952, Van Fleet Papers, Box 69.

78) Reuben E. Jenkins, Major General to Syngman Rhee, President, ROK, 23 October 1952, Van Fleet Papers, Box 69.

79)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 307.

8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권』, p. 420.

5. 맺 음 말

지금까지 1952년 10월 초에 철원 북방의 395고지에서 약 10일 동안 치열하게 전개된 격전에서 국군 제9사단이 승리하는 과정을 향상된 전투수행 능력, 전투수행 방식의 변화, 그리고 전투 효율성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특히 기존에는 주목하지 않았던 백마고지 전투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국군 제9사단의 향상된 전투수행 능력을 입체적, 다각적 시각에서 분석하여 백마고지 전투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서 국군 제9사단이 전투기간 내내 정보, 기동과 화력 등 전장의 제 요소를 효과적으로 결합한 변화된 작전수행 방식을 구사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모든 면에서 적을 압도하는 수준 높은 작전을 수행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백마고지 전투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 주목했던 ‘불굴의 정신력을 앞세운 승리’라는 요소 외에도 국군 제9사단이 화력과 기동을 접목한 현대적 전투방식으로 임했고, 이를 통해서 향상된 전투수행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국군 제9사단이 395고지 전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전투 효율성 관련 여러 가지 자료는 동일한 시기에 벌어졌던 다른 미군 부대가 수행한 전투에 비해서도 결코 뒤떨어지지 않았다.

종합하면, 국군 제9사단이 치열한 격전으로 전개된 395고지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과정과 배경, 승리 요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한국군 사단 중 최초로 FTC에 입소한 제9사단은 전 장병이 미군 군단과 KMAG의 지도에 따라 체계적이고 성실하게 훈련에 임하였다. 국군 제9사단이 FTC에서 이수한 전시 훈련이 중요한 이유는 이를 계기로 제9사단 장병들이 새로운 전쟁수행 방식을 체득하였기 때문이었다. 기존의 병력 중심의 전투수행 방식을 탈피하고, 대신 화력과

기동을 접목하는 새롭고 현대적인 전투수행 방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던 셈이다.

둘째, 제9사단은 FTC에서 전시 교육을 이수하는 동안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체감하였으며, 이는 차후에도 주기적으로 실시된 사단 및 연대급 부대의 자체 교육훈련에 반영되었다. 특히 사단 및 연대의 자체훈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도 주당 훈련시간, 야간훈련 비중 등 훈련관련 상당부분을 FTC에서 배운 그대로 실시하였다. 이처럼 FTC 입소를 계기로 제9사단의 모든 장병들은 평시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깨달았으며, 특히 395고지 전투를 앞두고 실제 전투에 필요한 체계적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실전에 대비할 수 있었다.

셋째, 미군의 장비와 보급품 지원은 국군 제9사단의 전투수행 능력과 전투 효율성 향상에 큰 효과를 발휘하였다. 1951년 후반부터 미군은 한국군 사단급 부대의 화력 증강에 주력하였는데, 포병화력의 경우 지원 및 자체 화력으로 구분하여 제공하여 한국군의 전투수행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한국의 산악지형을 고려하여 화염방사기, 유탄 발사기 등 근접 산악전 수행에 적합한 최신 무기체계를 적극 제공하여 갱도식 진지를 근거로 방어작전을 펼친 중국군과의 근접전투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 특히 전략적 요충지로 평가된 백마고지 전투를 앞둔 국군 제9사단에는 우선적으로 장비와 보급품이 지원되었으며, 이는 약 10일간의 전투가 지속되는 동안 적을 압도할 수 있는 전투력 발휘의 근간을 이뤘다.

넷째, 사단장 김종오 소장을 포함한 제9사단 지휘관들의 효율적 전투지휘와 상황에 맞는 리더십 발휘였다. 395고지 전투가 지속되는 동안 사단장과 연대장은 제한된 공간에서 진행되는 전투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으며,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주공부대와 조공부대의 교체, 예비대의 효과적 투입 등을 통해 적을 압도하였다. 뿐만 아니라 아군이 보유한 최대의 장점, 즉 적을 압도할 수 있

는 포병 및 항공 화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적을 제압하려는 현대적 전투 수행 방식을 구사함으로써 압도적인 규모의 적을 제압할 수 있었다.

이상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과거의 연구에서 관심을 쏟지 않았던 자료를 분석하여 백마고지 전투를 재조명함으로써 기존에 주목하지 않았던 6.25전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 있었다. 또한 이 전투에 대한 구체적 사료 분석을 통해 기존의 연구에서 막연하게 언급하였던 여러 가지 정황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전투에 영향을 미친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가 계기가 되어 승리와 패배의 원인을 찾아내는 목적 지향적 전투사(combat history)를 넘어서서 전투에 참가한 다양한 인간들의 모습에 관심을 갖는 새로운 군사사(new military history) 경향의 전투 연구(combat studies)가 필요한 시점이다.

[원고투고일: 2017. 10. 9, 심사수정일: 2017. 11. 23, 게재확정일: 2017. 11. 23.]

주제어: 국군 제9사단, 백마고지 전투, 전투수행 능력, 전투 효율성, 전투수행 방식, 야전훈련사령부(FTC)

〈참 고 문 헌〉

- 강원대학교 · 육군 쌍용부대, 『6.25 한국전쟁의 신화: 춘천대첩, 무엇을 남겼나?』, 춘천: 춘천대첩 50주년기념 학술세미나 자료집, 2000.
-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下)』, 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7.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권』,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 _____, 『6.25전쟁사 제9권: 휴전회담 개막과 고지쟁탈전』,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a.
- _____, 『6.25전쟁사 제10권: 휴전회담 고착과 고지쟁탈전 격화』,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b.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전투사: 백마고지 전투』, 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4.
- 김영선, 『김영선 회고록: 백마고지의 광영』, 서울: 도서출판 팔복원, 1997.
- 김운기, 『철의 삼각지』, 서울: 도서출판 현대문화센타, 1989.
- 대한민국 국방부, 『한국전란 3년지』, 서울: 대한민국 국방부 정훈부, 1954.
- 백선엽, 『6.25 한국전쟁 회고록: 군과 나』, 서울: 대륙연구소 출판부, 1989.
- 이대용, 『두 번의 혈전: 춘천전투와 낙동강교두보 사수』, 서울: 도서출판 백년동안, 2014.
- 유현중, 『백마고지: 김종오 장군 일대기』, 서울: 을지출판공사, 1985.
- 육군 군사연구소, 『중국군 공간사 번역서: 중국군이 경험한 6.25전쟁 I』, 대전: 육군 군사연구소, 2017.
- 육군본부 군사연구소, 『중국군 공세 의지를 꺾은 현리-한계 전투』, 대전: 육군본부 군사연구소, 2009.

_____, 『유엔군 3차 반격작전 시 지암리-파로호 전투』, 대전: 육군본부 군사연구소, 2011.

육군본부 군사연구소, 『한국전쟁사료: 전투상보 58권(9사단)』, 대전: 육군본부 군사연구소, 1987.

장도영, 『장도영 회고록: 망향』, 서울: 도서출판 숲속의 꿈, 2001.

중앙일보사 편, 『민족의 증언(6권)』, 서울: 중앙일보사, 1983.

정완진, 『붉은 신호탄: 화령장 전투 4일간의 기적』, 서울: 매일경제신문사, 2013.

나중남, “한국전쟁 중 한국 육군의 재편성과 증강, 1951~53”, 『군사』 63호(2007):213-266,
<http://uci.or.kr/G704-001528.2007..63.004>

남정욱, “한국전쟁 10대전투 고찰”, 『전사』 3호(2001):135-180.

다나카 츠네오, “다부동 전투를 통해 본 연합작전의 교훈”, 『군사』 53호(2004):75-100,
<http://uci.or.kr/G704-001528.2004..53.006>

유성중, “6.25전쟁 시 야전훈련사령부(FTC)의 창설과 역할”, 『군사』 91호(2016):1-32,
<http://uci.or.kr/G704-001528.2014..91.003>

장삼열, “화령장 전투의 군사적 재조명과 의의”, 『군사』 73(2009):101-139, <http://uci.or.kr/G704-001528.2009..73.006>

조봉휘, “6.25전쟁 시기 다부동지역에서 한국군의 군수지원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一年來最大激戰”, 『동아일보』(1952년 10월 9일)

“피에 물든 백마고지”, 『경향신문』(1952년 10월 11일)

“白馬高地 固守, 十二日夜 狂信的 反擊 敵을 屠戮”, 『동아일보』(1952년 10월 14일)

“북을 치는 中共, 遺棄屍體五百”, 『경향신문』(1952년 10월 15일)

- Coleman, J. D., *Wonju: The Gettysburg of the Korean War*, Washington, D.C.: Brassey's, 2000.
- Ent, Uzal W., *Fighting on the Brink: Defense of the Busan Perimeter*, Paduach, Kentucky: Turner Publishing Company, 1996.
- Hamburger, Kenneth E., *Leadership in the Crucible: The Korean War Battles of Twin Tunnels and Chipyeong-ni*, College Station, Texas: Texas A&M University Press, 2003.
- Hermes, Walter G.,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Washington D.C.: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66.
- Hinshaw, Arned L., *Heartbreak Ridge : Korea, 1951*, New York : Praeger, 1989.
- Mansoor, Peter R., *The GI Offensive in Europe : The Triumph of American Infantry Division*, Lawrence, Kansas: University of Kansas Press, 1999.
- McWilliams, Bill, *On Hallowed Ground: The Last Battle for Pork Chop Hill*, Annapolis, Maryland : Naval Institute Press, 2004.
- Utz, Curtis, *Assault from the Sea: The Amphibious Landing at Inchon*, Washington, D. C.: Naval Historical Center, 1994.
- “South Korean Troops Improved in Combat”, *The New York Times*(19 October 1952)

<Abstract>

A Study on the Battle of White Horse Hill, 1952

- Analysis on the 9th ROK Division's Improved Capabilities of
combat execution -

Na, Jong-nam

This paper deals with the 9th ROK Division's historic victory against the Chinese forces at the Battle of White Horse Hill, October 1952. Although there have been many, official and/or academic, researches on this battle, mostly, they have focused on some vague factors such as mental power as key factors of the victory. This paper, however, tries to suggest fresh point of views on this battle by analyzing several first-hand data of the battle such as number of troops, casualties, times and durations of engagements, number of consumed ammunition, and etc. While suggesting the concept of ways of fighting and combat effectiveness as a analyzing frame, This paper seeks to find out how the 9th ROK Division was able to repulse the Chinese troops for more than 12 times during the 10-days long fierce and bloody battle.

In order to review the detailed backgrounds of the 9th Division, this paper follow the history of this unit since May 1951 when it was collapsed seriously by the Chinese forces. After the defeat, the 9th Division was the first ROK unit that entered the Field Training Command(FTC) in August 1951 in order to reorganize and rehabilitate under the guidance of US Forces in Korean and KMAG. During 8 weeks of a well-organized training at the FTC, officers and soldiers of this division learned modern combat skills by harmonizing firepower and mobility of forces together. Also, since this unit came back to the front line in November 1951, The commanders of this unit never stopped to train their soldiers and troops by using FTC training models while increasing its combat effectiveness.

When the Battle of White Horse Hill started in early October 1952 finally,

the 9th ROK Division overwhelmed the Chinese forces by not allowing for the enemy to capture Hill 395. Although the Chinese troops captured the top seven times briefly during 10 days of the battle, the 9th ROK Division never stopped to repulse the enemy from the top with superior combat power based on more numbers of troops, strong firepower, and effective leadership skills. By analysing several key data on the Battle of White Horse Hill, this paper sheds light on the 9th ROK Division's developed way of fighting and superior combat effectiveness as the main factors of its final victory against the Chinese forces.

Keywords: the 9th ROK Division, the Battle of White Horse Hill, combat effectiveness, ways of fighting, the Field Training Command(FTC)

